

광 고

원양산업

제 1164 호

(2023년 12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WCPFC 제20차 연례회의 참석 / 4
- 협회, ICCAT 제28차 연례회의 참석 / 5
- CCAMLR 사무국 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 / 6
- 협회, 선상투표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참석 / 7
- 협회, 선박직원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추진 / 7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3년 11월 보고 내용 / 8



이달의 요리

- 콩치 간장조림 김밥 / 12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12월 MGO 싱가포르 bunker 가격 전월 대비 하락 / 13

■ 참치어업 동향

- WCPFC 연례회의, 열대참치 보존·관리 조치 합의 / 14
- ICCAT 회의, 눈다랑어 할당 문제 논의 / 15

- ICCAT, 참치 어업에 대한 새 권고 사항을 제시 / 16
- ICCAT, 국가별 쿼터 및 FAD 규제 관련 현행 유지 / 16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550 달러 / 17
- 중서부태평양 10월 전재량, 5년 만의 최고치 / 17
- 동부태평양에서 지속되는 기록적인 참치 어획 / 18
-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650 달러 / 19
- 11월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톤당 1,500 유로 / 19
- 日 10월 냉동 가다랑어 수입 단가, kg당 722 엔 / 20
- 日, 10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 21
- PNG, 두 개의 새로운 MPA 추가 / 22
- 영국 슈퍼마켓 '유해 어법으로 잡은 참치 판매' / 22
- 30개 WCPO MSC 어업, 어획전략 조기달성계획 채택 / 23
- 멕시코-에콰도르 FTA 협상, 참치 관련 분쟁으로 무산 / 24
- 美 1~3분기 참치 통조림 수입실적 하락세 지속 / 24
- 타이유니온 3분기 순이익, 전년 대비 52% 감소 / 25
- 日, 지중해산 양식 참다랑어 연말 수요 증가 예상돼 / 25
- 선박용 연료유 비용, 하락세 지속 / 26
- 프랑스 선사, 쿼터 삭감으로 참치 어선 3척 매각 / 26
- 日 참치조합장 "참치 산업, 고유가여가 하락에 직격" / 27
- WWF "에콰도르, 2030년까지 해양 분쟁 위험 지역" / 28
- 日, 참다랑어 어업에 대한 통제 강화 예정 / 28
- 스페인, 참치 3개종, 2050년까지 15% 감소 예상 / 29
-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분포, 기후 변화로 예측 가능 / 30

Contents

■ 오징어어업 동향

- 中, 오징어 어획량 증가했으나 수출 및 내수 감소 / 31
- 페루, 3분기 수산물 어획량 32% 감소 / 32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 명태 산업, 생산량 급격한 증가 예측 / 33
- 러, 어획량 증가세 유지 / 33
- 알래스카 명태 어획량, 2024년에도 높은 수준 예상 / 34
- 미국, 새로운 명태트롤선 건조 / 34
- EU, 2026년까지 러시아 환살생선 무관세 대상 제외 / 35
- 노레보, MSC 인증 취득 / 35
- 러, 11월 말까지 490만 톤 이상 어획 / 36
- 러, 더 효율적으로 조업 / 36
- 명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 / 37
- 러, 내년도 명태 어업 긍정적 평가 / 37
- 러, 12월 1일부터 전자 조업 일지 의무화 / 38
- 벨라루스, 러 명태 쿼터 70% 이상 어획 / 38
- 마케팅 강화에 투자하는 명태 생산업체 / 39

■ 공치어업 동향

- 日 10월 말 공치 어획량, 전년대비 약 40% 증가 / 40
- 日, 러시아 수역 공치 쿼터 20% 감소 / 41

■ 각국 수산 동향

- 美 언론, 中 원양어업 강제노동 문제 주목 / 42

- 美, 수산물 감독 확대안 철회 / 43
- 美 의회, 러시아산 생선 퇴치를 위한 그룹 설립 / 43
- 美, 국가 필요에 따라 어민 지원 / 44
- 美, 식물성 수산물 시장 5년간 28%씩 성장 예상 / 44
- 제42차 CCAMLR 연례회의 개최 / 45
- 러 수산물 협회, 페로제도 수산물 금수조치에 반발 / 46
- 러 은행장, 조선 산업의 침체 상황을 말하다 / 46
- 아일랜드 어민, 2,500만 유로 지원 받아 / 47
- 노인이 섭취를 줄여야 하는 어종은? / 47



쉬어가는 난

- 〈파도의 말〉 - 이해인 / 48



국내 수산 정보

- 11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9
- 11월 명태 국내 동향 / 51
- 제8회 북극협력주간, 부산에서 개최 / 53
-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 54
- 해수부, 美 해양포유류보호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 55
- 해수부, 항만안전 연수회 개최 / 55
- 한국, IMO 최상위 A그룹 이사국에 12회 연속 선출 / 56

협회, WCPFC 제20차 연례회의 참석

열대성참치보존조치 개정 등 채택



우리 협회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쿡 라로통가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0차 연례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원국 26개국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우리 측은 해수부 허만욱 국제협력정책관, 국충과 신범준 서기관 외 2명, 업계에서 동원산업 김영현 대리, 동원수산 강성준 대리, 사조산업 이경영 부장 외 1명, 신라교역

김호운 대표 외 2명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최봉준 과장, 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열대성참치보존조치 개정, 전채 관련 보존관리조치 개정, 이행감시제도(CMS) 조치 개정,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조치 개정 등의 내용이 채택되었다.

협회, ICCAT 제28차 연례회의 참석

열대성다랑어 보존관리조치 등 제개정 논의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8차 연례회의가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 뉴카이로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EU, 미국, 일본, 중국, 가나, 세네갈 등 ICCAT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 NGO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해수부 심수빈 사무관, 원태훈 주무관이 참석하였고, 업계에서 동원산업

공득화 과장 외 1명, 사조산업 박진석 차장 외 1명이 참석하였다. 협회에서는 백상진 주임,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별 이행 사항 검토, 열대성다랑어 보존관리조치 등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CCAMLR 사무국 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

총회 결과, 보존조치 개정사항 등 설명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13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위원회(CCAMLR) 사무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CCAMLR 전문가로는 CCAMLR 사무국 소속의 Steve Parker와 Isaac Forster가 초빙되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김정례 주무관, 국립수산물과학원 이재봉 과장 외 2명, 한국수산자원공단 최기원 전문관, 조업감시센터 강혜주 주무관, 동원산업 공

득화 과장 외 1명, 정일산업 전선중 부사장 외 2명, 티앤에스산업 정태빈 대표 외 2명, 흥진실업 배갑주 대표 외 1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진호정 해외협력2부 부장 외 2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CAMLR에 대한 개요 설명, 제 42차 CCAMLR 연례위원회 및 과학위원회 결과, 보존조치 개정사항, '24 크릴 심포지엄 개최, 보고양식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협회, 선상투표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참석

1월 말 선상투표 설명회 개최 예정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에서 개최된 선상투표 유관기관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였다.

회의에는 선관위 재외선거과 김동춘 과장 외 2명,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안준영 서기관, 원양노조 정찬호 국장 등이 참석하였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선원복지고용센터, 해운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선원노련, 선박관리산업노동조합, 선박 통신업체 등의 기관에서 참석하였다.

선상투표 신고 기간은 2024년 3월 19일~23일이며, 투표용지 전송 기한은 2024년 4월 1일, 투표 기간은 2024년 4월 2일~5일이다. 투표 방법은 일반팩스(송수신 가능한 일반팩스 필요)와 전자팩스(선상투표 홈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스캔 가능한 복합기 필요) 2가지이다.

선관위 측은 협회에 선상투표 모의시험 및 팩스 사전점검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고, 아울러 선관위 대표 전자우편 주소가 스팸 설정되지 않도록 안내를 요청하였다. 또한 선장이 국내 도착 즉시 선상투표 관리기록부와 보관 증인 봉투를 시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선상투표 보전청구 방법에 대한 안내 또한 당부하였다.

선관위는 2024년 1월 말 선상투표 설명회를 개최 예정이며, 모의 시험을 3차례(내년 1.29~2.2 지정 선박, 2.19~23 전체, 3.4~8 1,2차 미실시 선박)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선박직원법 개정 관련 업무협의 추진

안병길 의원실, 해수부 등과 협의

우리 협회는 안병길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24일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안병길 의원 및 해수부 측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지난 11월 13일에는 우리 협회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과 소기동 부장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해수부 원양산업과, 선원정책과와 함께 개정안 의견검토 시 참고할 사항 및 협회업계 이해관계자 방문 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11월 29일에는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과 소기동 부장이 해수부 선원정책과를 방문, 기관사 부족 현황을 설명하고 외국인 해기사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12월 1일에는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과 소기동 부장이 국회 안병길 의원실을 방문, 이지영 선임비서관에게 외국인 해기사 도입 당위성 및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선박직원법 개정안 처리 동향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11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관

가.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1,550
	3.4~10kg	1,450
	1.8~3.4kg	1,350
눈다랑어	10kg~	1,200
	3.4~10kg	1,200
	1.8~3.4kg	1,200
가다랑어	3.4kg~	1,400
	1.8~3.4kg	1,350
	1.5~1.8kg	1,200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로/톤)	조사일
다카르항	-	690	'23.11.24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관

가. 피지 투자 동향

- 피지는 남태평양 섬의 경제, 교통 및 학문의 중심지로 2022년 15.6%의 경제 성장 이후 2023년 6.0%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피지는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 자연 재해 위험, 정부의 막대한 공공 부채에 대한 전망이 취약하며, 2022년 7월 기준 공공부채는 피지 GDP의 90%를 초과하였다.
- 2022년 기준 미국은 피지의 최대 수출국으로 수출액은 총 6,4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900	로안가공용(PAFCO)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139	'23.12.8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선 전복 사건 발생

- 9월 14일 동부 자바 주 시투본드 지역 탄중카말 해역에서 무동력 어선이 전복되었으나 근처의 다른 어선에 발견되어 구조되었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RP/kg)
오징어	중대형 사이즈	65,000
고등어	전장 17cm	45,30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RP)	조사일
PERTAMINA	MDF	16,200	'23.11.27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수산업 동향

- 아메리카 사모아 및 쿡아일랜드 연근해 어장의 일일 평균 어획량은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1~0.3톤을 기록하였다.

나. 선원 묘지 도색 및 제초 작업

- 12월 7일 한인회에서 원양어선원묘지 4지역, 전체 묘역에 도색 작업 및 주변 제초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경유	3.51	'23.12.5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잡어 어획 시작

- 올해 11월 말부터 상가수리를 마친 어선 2척이 새로운 어기의 첫 조업을 개시하였다.
- 1월 오징어 조업 시작전까지 각종 잡어를 어획할 예정이다.
- 이번 어기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호키 쿼터가 부족한 편이라 오징어 어획에 따라 조업 가능 수역이 제한될 수도 있다.
- 만약 오징어가 많이 어획될 경우, 호키를 혼획으로 잡을 양은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조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 자발적 MSC 정치

- SEAFOOD NEW ZEALAND社は 오렌지러피의 MSC 인증(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증)을 자발적으로 임시정지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동사는 동어종에 대한 개체수 검증을 절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호키	2L	3,150
	L	3,150
	M	2,850
	S	2,450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Z	MGO	1,090	'23.12.6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수산 동향

- 아르헨티나는 최근 2년간 불법 조업 및 외국 해적선 등이 적발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앞으로 더 체계적인 관리를 약속하였다.
- 12월 15일 인도네시아 선원이 선박에서 사망하였으나 승선하고 있던 다른 선원 모두가 사망 증명서 서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법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사망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현재까지 장례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아르헨티나 어업회의소 등에서는 2024년도 일렉스 오징어 조업을 1월 10일부터 44도선 이남 개방을 요청하였으나 연방수산위원회는 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49도선 남쪽에서 조업을 명명하였다.
- 11월 14일까지 아르헨티나는 68만 5,268톤을 어획하여 지난해 누계 79만 3,513톤에 근접하였다.

- 아르헨티나는 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 발전의 균형을 잘 준수하고 있는 페루의 조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식량 안보와 자원 보호를 동시에 달성키로 노력키로 하였다.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650	'23.12.8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스페인 함정 배치

- 스페인은 현대화된 해군 함정을, 가나를 비롯한 인근 8개국에 배치하여 해상안보와 해군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 스페인의 13년간 기니만 파병으로 인하여 가나의 해적과 IUU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2,150
	~10kg	1,720
가다랑어	3.4kg~	1,700
	1.8kg~	1,650
	~1.8kg	1,500
	~1.5kg	1,35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양상급유)	MGO	1,050	'23.11.30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연승사업

- 20년 동안 여러 회사가 연승선 사업을 하였으나 모두가 실패하였다.
- 시장 접근성 어려움, 소규모 조업, 정부의 비효율적 규제 정책, 고비용 등이 사업 실패의 이유로 분석된다.
- 일본 및 대만 회사가 빙장을 추진하였으나 항공편 부족과 어장과와의 거리에 따른 운송에 곤란을 겪고 사업을 포기하여 국내 Steak Loin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1척의 연승선만 운영하고 있다.
- 비스마르크해는 황다랑어 생산이 많은 어장으로 연간 5만~6만톤이 어획된다.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





꽂치 간장조림 김밥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꽂치 300g 1캔, 김밥김 2장, 참기름 10g, 밥 800g, 소금 3g, 청상추 6장, 깻잎 6장, 참깨 5g, 생와사비 10g,

<소스>

진간장 4큰술, 맛술 4큰술, 설탕 2큰술, 생강 1쪽, 생수 1컵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꽂치와 국물을 분리해 준비한다.
- ② 준비된 재료로 소스를 만들고 소스와 꽂치를 넣어 윤기가 나도록 중,약불로 졸여준다.
- ③ 꽂치가 물기 없이 졸여지면 접시에 담아 식혀준다.
- ④ 밥에 소금, 참기름으로 간을 한다.
- ⑤ 김밥을 준비하고 김→현미밥→상추 3장→꽂치 간장조림→생와사비→참깨 순으로 넣어 동그랗게 말아준다.



12월 싱가포르 MGO 가격 전월 대비 하락

12월 11일 기준 743 달러

12월 12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4.98 달러, WTI 가격은 68.61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73.24 달러를 기록하였다.

12월 12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740달러로 11월 10일(765 달러) 대비 약 3%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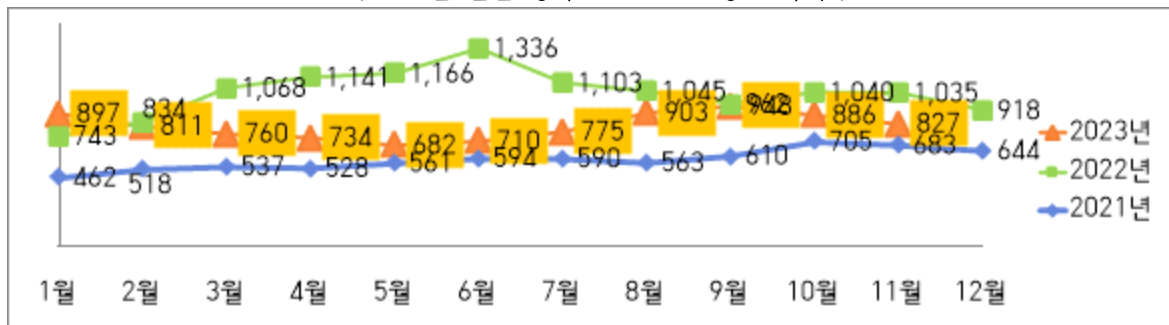
12월 평균(12.1~12.12) 가격은 743 달러로 전월 평균(11.1~11.30)인 801 달러 대비 약 7% 하락하였다. 전년 12월(12.1~12.31) 평균보다는 19% 하락하였고, 전전년 12월과 비교해서는 15% 상승하였다.

2023년 평균(1.1~12.12) 가격은 806 달러로 전년(1.1~12.31) 평균 대비 22%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38%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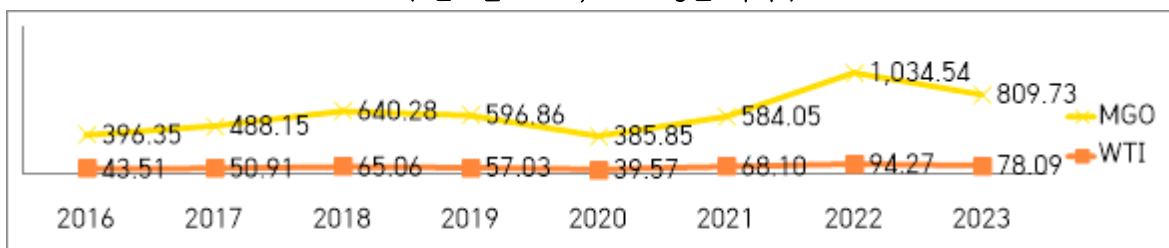
유가 하락세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하강 우려 때문이다. 간밤 미국 노동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근원 CPI는 여전히 연방준비제도(Fed) 목표치(2.0%)를 크게 상회하면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우려를 키웠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질 경우 경기 침체를 촉발하면서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분석 회사 오안다의 크레이그 얼람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 석유 수출기구 플러스(OPEC+) 감산에 대한 회의론, 미국의 기록적인 생산으로 유가가 연말까지 압박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WCPFC 연례회의, 열대참치 보존·관리 조치 합의

날개다랑어 어획 전략, 가다랑어 관리 절차 등 합의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중서부태평양 참치위원회(WCPFC) 연례회의에서 열대참치 보존·관리 조치 합의문이 장시간의 회의 끝에 채택되었다.

열대 참치류(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에 대하여 2024~2026년 동안 적용되는 새로운 조치가 합의되었다. 눈다랑어는 최근 자원 동향을 근거로 하여, FAD 조업 금지 기간이 EEZ의 경우 3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되고, 공해의 경우 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된다.

눈다랑어 연승 어업의 경우, 기본 어획 상한은 현행 조치에서 변함이 없으나(일본의 경우 1만 8,265톤), 옵서버 커버리지 비율(현행 5%)의 증가에 따라 어획 상한이 최대 10%까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하와이 연승 어업 어획 상한은 6,554톤으로 증가하였다.

가다랑어의 경우, 작년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관리방식에 따라,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경우, TAC 증량 등 조치를 수정할 수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규정으로서 재차 명기되었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대체 계수를 이용하여 소형어를 대형어로 대체하는 특례조치에 대해, 소형어 어획 상한선인 10%를 30%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2021년까지 대형어 어획량이 없었기 때문에, 현행 특례인 25%에서 40%까지 확대된다.

퓨(Pew) 자선재단은 성명에서 “8년간의 노력 끝에 태평양 전역에 걸친 날개다랑어 어획 전략이 합의되었다. 이는 태평양에 있어서 중대한 성과이며, 날개다랑어 자원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들은 또한 가다랑어 관리절차에 대하여 “관리절차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고, WCPFC가 세계 최대 규모의 참치 자원을 보다 더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준비가 갖추졌다.”라고 말하였다.

퓨 자선재단은 약 10년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치 개정안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실망감을 표하였다. 작업반의 권고안은 12월 7일에 논의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퓨 자선재단에 따르면 전제 규정은 태평양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인 IUU 어업 억제에 필수적이다.

또한, 회의의 주제 중 하나였던 영구적인 선박 규정 준수 및 모니터링 체제의 확립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2024년으로 넘어간 핵심 조항 중에서는 기술호환성 위원회(Technical and Compatibility Committee)에 대한 옵서버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된다.

* 출처: Atuna, UndercurrentNews, 미나토신문, 2023년 12월 11일자



ICCAT 회의, 눈다랑어 할당 문제 논의 지속가능한 미래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

이집트에서 열린 제28차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이하, ICCAT) 정기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눈다랑어 할당과 어린 참치 어획량 및 혼획량 감소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EU는 회원국들이 눈다랑어 어획 개발도상국에 대 한 보다 공평한 재분배와 자원 회복을 위해 주요 조 업국들이 이미 기울인 많은 노력을 인정하는 등 공 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 표단은 눈다랑어 자원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경 제적 영향을 언급하며 2024년과 2025년에 대한 상 한선을 73,000톤으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 한 IOTC 연례 회의에서 추진했던 것과 유사한 공해 상 승선 및 검사 제도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결의 안도 제출하였다. 또한 연승어선에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게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RFMO의 눈다랑어 보존 조치는 여러 환경단체와 어업 국가, 특히 EU 선망 선단으로부터 비난을 받았 다. 작년 11월에 열린 제23차 연례 회의에서 눈다 랑어의 총허용어획량(TAC)은 62,000톤으로 유지 하였다. 어업 국가들은 TAC를 늘리기를 원하지만, 과학자들은 자원 회복을 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 기를 원한다.

캐나다는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자원의 미래가 위 험받고 있으므로 ICCAT이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치 어 사망률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어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열대 참치 중에 설정된 TAC 수준이 적용 가능한 최 상의 과학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본은 또 한 북대서양 짧은지느러미 마코상어의 높은 폐사율 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위원회에 2021년에 눈다랑어에 대한 자원 평가에서 TAC 증가 가능성을 포함한 낙관적인 결 과가 나왔지만, 총어획량을 TA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캐나 다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들은 어린 열대 참치 어획량을 줄이기 위해 FAD를 포함한 더 강력한 보 존 조치를 원한다. 또한 RFMO 회원국이 향후 쿼터 를 완전히 활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는 어획 한도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CCAT 회의를 앞두고 퓨 자선 트러스트, WWF, 오세아나 등 여러 NGO는 투명성 강화와 더 엄격한 IUU 방지 조치를 요청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11월 14일자





ICCAT, 참치 어업에 대한 새 권고 사항을 제시

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자원 보호 조치 갱신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는 어업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자원량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갱신하였다. 이에 20개의 새로운 권고안과 4개의 결의안이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에서 제28차 정기 회의가 화상 회의 형태로 개최되어, 47개 회원국, 4개 협력국, 10개 국제기구 및 26개 비정부기구에서 583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보존이행위원회(COC)는 과학조사 프로그램, 항만국 검사 조치, 상어류 등 통제 보고서 작성 절차를 검토하였다. 공해상 선박 검사 계획과 전자 모니터링

(EMS)의 최소 기준이 정의되었다.

패널 1에서는 참치 관리 방안, 국가별 어획 한도량 배분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패널 2에서는 날개다랑어 및 참다랑어 조업 규제 조치를 논의하였으며, 참다랑어 자원 관리 대책을 신속히 검토할 수 있는 특별 상황 보고서가 검토되었다.

패널 4에는 황새치, 돛새치에 대한 자원 관리 전략 평가(MSE)와 청상어 및 고래 상어 자원에 대한 보존 조치를 논의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3년 11월 24일자

ICCAT, 국가별 쿼터 및 FAD 규제 관련 현행 유지

눈다랑어 관련 합의 도달 실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연례회의가 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에서 진행되었다. TAC 증대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국가별 쿼터나 FAD 규제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었고, 결국 2024년에도 현행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눈다랑어 관리 조치는 과학위원회의 “높은 확률로 자원을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TAC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권고에 근거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수산청 측에 따르면 TAC를 7만 3,000톤까지 늘리는 것은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국가별 쿼터 배정이 각국 및 지역의 견해차로 인하여 타결되지 않았다. 일본 수산청은 FAD 규제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2023년 관리 조치에서 눈다랑어 TAC는 6만 2,000톤이며, 이 중 일본의 쿼터는 1만 3,980톤이다. FAD 조업 금어기는 72일간이며, 사용 수 제한은 1척당 300대이다.

대서양 참다랑어의 경우, 2025년까지 수량이 결정되었기에 이번에는 논의가 없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11월 22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550 달러

이전 가격 대비 다소 하락...추가적 하락 예상돼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 방콕에서의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1월 도착 예정인 가다랑어 원어 계약은 톤당 1,550 달러에 체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주 전 가격에 비하여 약 3% 하락한 수치이다.

현재 모든 징후는 가격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방콕 가공업체는 가다랑어 공급 과잉을 예상하고 있다. FAD 금어기 종료 이후, 중서부태평양 10월 가다랑어 어획량은 예외적인 수준인 적당 1일 평균 38톤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나우루협정당사국(PNA) 항구의 10월 전재량은 기록적인 수준인 15만 4,240톤을 기록하였고, 이 물량은 몇 주 내로 태국 항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Atuna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방콕 항구에서 운반

선이 대기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아직까지 병목 현상이 없음을 의미한다. 2019년 중서부태평양 선망 어획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갑작스러운 과잉 공급이 발생하였고, 이 당시 병목 현상으로 인하여 11월 가다랑어 가격이 톤당 850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태국 가공업체들은 원어를 매입 중이나 최종 시장의 주문량이 보통 수준이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매자 측은 가다랑어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다리고 있으나, 이러한 접근 방식과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FAD 어획 참치 대량 공급으로 인하여 시장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11월 30일자

중서부태평양 10월 전재량, 5년 만의 최고치

10월 동안 8만 8,993톤 전재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나우루협정당사국(PNA) 항구의 10월 참치 전재량은 5년 만의 최대치인 8만 8,993톤으로, 9월 대비 55% 증가하였다. FAD 금어기 이후, 10월 선망선단의 어획량은 15만 4,240톤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선박당 1일 평균 어획량 또한 40톤이라는 예외적인 수준을 기록하였다.

어획의 대부분이 중서부태평양 동부 수역에서 이루어졌다. 키리바시의 10월 전재량은 3만 3,000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마셜제도 마주로의

전재량은 2만 9,000톤이었다. 파푸아뉴기니 수역 및 마당, 라바울, 라에 항구에서의 전재량은 약 2만 3,000톤이었다.

어획된 원어는 방콕, 만타, 제너럴산토스와 같은 가공 허브로 향한다. 방콕 가공업체는 이미 9월에 다량의 가다랑어를 반입하면서 어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였다. 운반선이 태국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약 4~6주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어획분은 조만간 목적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Atuna, 2023년 11월 29일자



동부태평양에서 지속되는 기록적인 참치 어획 지난해보다 어획량 12% 증가

2023년 첫 9개월 동안 동부태평양(EPO) 어선들은 사상 최대 참치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좋은 어획량은 첫 번째 금어 기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동부태평양 선망어선과 연승어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한 58만 8,303톤의 참치를 어획했으며, 이는 5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이다. 7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1만 7,516톤의 참치를 어획하였다(금어는 이 기간 대부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10월 8일에 종료되었다).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어획량은 각각 29만 1,666톤과 25만 6,691톤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에콰도르 선단은 작년보다 3만 4,628톤 증가한 17만 2,627톤의 가다랑어 어획으로 전체 23만 1,575톤의 어획량을 기록하여 2022년 대비 3만 500톤의 어획량을 증가하였다. 멕시코도 좋은 어황을 보였으며 10월 1일까지 황다랑어 어획량이 12만 9,293톤으로 작년보다 2만 7,132톤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8% 더 많은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파나마와 베네수엘라 국적의 선박은 참치 어획량이 적었다. 베네수엘라 선적 어선들은 3분기까지 1만 3,974톤을 적게 어획하여 2019년과 2020년 어획량 수준이었다.

* 출처: Atuna, 2023년 11월 10일자

〈 연도별 어종별 동부태평양 참치 어획량 비교 〉

(단위: 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비
가다랑어	270,271	257,108	260,824	249,742	291,666	17%
황다랑어	180,353	177,913	214,895	239,217	256,691	7%
눈다랑어	41,402	41,626	33,731	23,507	28,640	22%
참다랑어	2,460	3,268	3,026	3,129	3,399	9%
기타	9,643	4,548	10,027	10,336	7,907	-24%
합계	504,129	484,463	522,503	525,931	588,303	12%



만타 가다랑어 가격, 톤당 1,650 달러

전월 대비 톤당 200 달러 하락

만타 가다랑어 가격이 2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가공업체의 저장고 부족 및 대량 공급이 맞물리면서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약세인 톤당 1,650 달러 선에서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중순에는 원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지점 기준으로 가다랑어 가격은 11월 보고된 가격인 톤당 1,850 달러보다도 200 달러나 하락하였다.

지난 2주 동안 항구는 두 번째 Veda(금어기)로 인

하여 항구로 복귀한 선망선단으로 인하여 가다랑어가 넘쳐나는 상태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초저온 저장고의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사들은 어획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가격을 낮추었다. 가공업자들은 미온적인 수요로 인하여 공장의 가동을 감축시킨 상태이다. 가다랑어의 가격은 내년 1월 19일 금어기가 끝나기 전까지, 어획 상황에 따라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출처: Atuna, 2023년 12월 4일자

11월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톤당 1,500 유로

전월 대비 비슷한 수준...인도양 어획량 20% 감소

인도양 선망선단의 올해 참치 어획량은 20% 감소하였고, 대부분 어선은 황다랑어 쿼터를 채우지 못해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은 타 허브 대비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 중이다.

원어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은 이전과 비슷한 가격대에 가다랑어를 판매하고 있다. 11월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500 유로(약 1,642 달러)로, 10월 가격인 톤당 1,512 유로 대

비 큰 차이가 없었다. 방콕 가격(톤당 1,600 달러)과 만타 가격(톤당 1,850 달러)과 비교하면 인도양 가다랑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440 유로였다.

선단은 매우 적은 어획량을 기록한 채 올해 조업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참치 어획량은 20% 감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11월 23일자



日 10월 냉동 가다랑어 수입 단가, kg당 722 엔 전월 대비 상승...올해 들어 전월 대비 첫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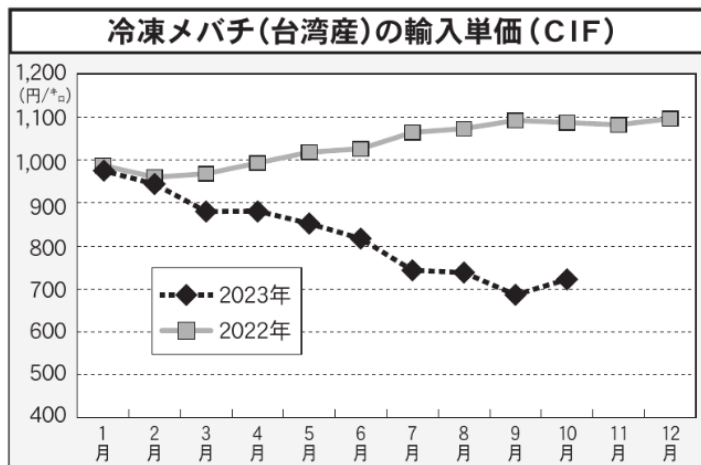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참치류의 10월 수입실적은 선어·냉동 제품 수입량 347톤(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 수입액 7억 3,300만 엔(44% 감소),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3,998톤(15% 감소), 수입액 101억 5,200만 엔(37% 감소), 가공품 수입량 3,924톤(2% 감소), 수입액 35억 1,700만 엔(6% 증가)을 기록하였다.

1월부터 계속된 냉동 눈다랑어 단가 하락세가 결국 멈췄다. 일본의 10월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평균 수입 단가는 kg당 722 엔(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으로, 9월 가격인 kg당 697 엔 대비 상승하여 다시 700 엔 대를 회복하였다.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의 단가 또한 kg당 722 엔으로, 9월 가격인 686 엔 대비 상승하였다.

연말 판매 경쟁으로 인하여 재고 물량 이동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하여, 작년 12월 kg당 1,096 엔까지 상승했던 대만산의 단가가 400 엔 이상 하락했다는 점으로 인하여 소매 판매점의 기초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 등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여기에 회전초밥 매장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눈다랑어를 메뉴에 사용 중이고, 인바운드(일본 방문 해외 관광객) 소비 또한 증가한다는 점 또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단가 하락의 주원인이었던 냉동 저장고 공간 부족 문제 또한 개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냉동고의 공간이 나오기까지 대기 중이던 운반선의 대기 기간도 단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12월 7일자





日, 10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냉동 눈다랑어 109톤 수입

〈 2023년 10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날개 다랑 어	한국	-	96	99	217	155	244	73	27	7	29
	대만	27	4	281	473	437	21	492	261	552	3,543
	바누아투	-	1	131	198	353	-	1	-	-	75
	기타	105	42	3	-	31	125	253	447	403	581
	소계	133	144	396	888	975	391	818	735	962	4,227
황다 랑어	한국	173	217	262	92	58	505	329	214	305	164
	중국	54	338	265	304	177	537	583	513	163	252
	대만	1,295	1,668	1,245	1,793	1,865	1,240	655	941	1,138	1,009
	필리핀	987	245	74	122	121	-	-	-	-	-
	인니	26	94	164	67	17	-	-	25	-	-
	미국	-	-	-	-	-	-	-	-	-	-
	바누아투	56	168	400	251	101	127	103	133	12	69
	피지	16	12	28	-	18	4	-	-	75	-
	키리바시	4	2	13	3	-	-	50	25	-	42
	마셜제도	180	1	197	-	267	124	-	50	50	-
	기타	1,662	692	3,465	1,106	1,975	1,781	1,253	814	1,196	497
	소계	4,453	3,437	11,209	3,738	4,598	4,317	2,973	2,714	2,940	2,034
눈다 랑어	한국	84	136	126	513	112	559	275	175	257	109
	중국	136	373	949	558	479	1,115	977	1,097	607	544
	대만	1,717	1,538	2,639	2,852	2,757	2,284	1,410	2,707	2,600	2,796
	필리핀	-	-	-	-	-	-	-	-	-	-
	인니	1	30	8	8	7	-	-	-	-	-
	세이셸	562	280	137	364	368	686	298	645	470	265
	바누아투	41	309	484	613	232	82	62	306	107	160
	기타	36	82	40	117	52	151	226	66	54	45
	소계	2,578	2,748	4,385	5,026	4,007	4,918	3,247	4,996	4,095	3,918
남방 참다 랑어	한국	-	132	-	-	-	-	-	-	102	-
	대만	6	10	5	-	-	-	-	-	72	226
	호주	-	-	-	-	-	20	717	1,561	5,041	115
	소계	-	-	-	-	-	-	-	-	5,215	342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12월 7일자



PNG, 두 개의 새로운 MPA 추가

16,000km²(충청도)를 넘는 공간

파푸아뉴기니(이하, PNG)는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하겠다는 유엔의 '30x30'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16,000km²가 넘는 해양보호구역(MPA)을 새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참치가 풍부한 뉴아일랜드주의 로봉가이 및 무라트 지방정부(LLG) 관할 구역에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 국가 보존 및 환경 보호청(CEPA)은 참치 조업 제한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뉴아일랜드 북서쪽 지역인 모가도 광장을 포함하여 더 넓은 지역을 보호 조치에 포함할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PNG의 EEZ에는 풍부한 참치 자원 외에도 상어, 가오리, 톱피쉬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여러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 나라에는 RD 참치 통조림과 마제스틱 시푸드 통조림과 같은 유명한 참치 통조림 업체가 있다. PNG는 지속 가능성에 관한 주장을 고수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PNG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던 심해 채굴 회사 노틸러스 미네랄社에 대해 영업을 유예하기도 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11월 13일자

영국 슈퍼마켓 '유해 어법으로 잡은 참치 판매'

슈퍼 자체 브랜드와 브랜드 제품의 원료 달라

블루마린재단은 환경단체 블룸 및 그린피스 영국과 함께 슈퍼마켓 공급망의 어업 관행과 정책에 대해 6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체 브랜드 참치 통조림과 브랜드 참치의 원료 정책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부분의 자체 브랜드 제품은 집어장치(이하, FAD)를 사용하여 잡은 참치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AD는 어린 참치, 멸종 위기종, 보호종을 포획하고 플라스틱 오염과 생태계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 단체는 마크스 앤 스펜서가 상위 10개 슈퍼마켓 중 유일하게 매장에서 판매되는 참치 통

조림 중 이 방법을 사용한 제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조사단은 아이슬란드가 브랜드 참치만 판매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편, 테스코와 알디를 포함한 다른 여러 소매업체는 자체 브랜드 원료 정책에서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를 참조하고 있다.

조사단은 MSC에서 지속 가능한 것으로 인증받은 참치의 절반 이상이 FAD에 의존하는 어업에서 생산된다는 블룸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며, MSC인증이 FAD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하였다.

* 출처: TIMES Series, 2023년 11월 10일자



30개 WCPO MSC 어업, 어획전략 조기달성계획 채택 PNA, 트라이마린, AGAC, 신라 등 포함

다수의 MSC 인증 어업이 '섹션 SE' 조기 채택에 합의하였다. 섹션 SE는 '어획전략(harvest strategies, HS)' 및 '어획통제전략(harvest control rules, HCR)'와 기타 수단의 개발 및 구현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는 HS와 HCR에 대한 MSC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정 기한을 준수하도록 공동 행동을 수행하는 내용 또한 포함한다.

MSC 위원회는 중서부태평양(WCPO)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에 대한 지속가능성 인증 보유 어업에 관하여 섹션 SE 공개보고서 초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문서는 나우루협정당사국(PNA), 트라이마린, AGAC, 신라, 파푸아뉴기니 어업협회(PNG FIA) 등의 고객을 대변하는 여러 적합성평가기관(CAB)과의 협업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업계가 보유한 많은 인증이 공동 계획에 대해 작업할 예정이지만, 세계 최대 참치 어업인 PNA는 자체적으로 작업할 예정이다. 다수 열대 참치종에 대한 전반적 점수는 합격선으로 나타났으나, CAB는 일부 조건을 기재하였다.

업계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눈다랑어 및 FAD에 대한 PNA 어업의 인증 범위 확장 보고서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PNA의 인증 확장은 이번 섹션 SE 과정을 포함한 일부 요인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다. PNA CEO인 Sanga Clark에 따르면 PNA 수역 내 모든 세트에 대한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재인증 보고서가 곧 발표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자는 언급되지 않았다.

섹션 SE에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에 대하여 각각 1부씩의 문서가 기재되었다. 2022년 10월, MSC는 수산 표준 3.0의 최신 버전(2023년 5월 1일 발효)을 발표하였다. 해당 발표를 통하여 HS 및 HCR에 관한 새로운 섹션이 신설되어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관리 어업에 필수가 되었다. MSC 인증 로고를 보유한 어업은 3년 안에 최신 버전으로 전환해야 하며, 모든 인증 보유자는 2028년 11월 1일까지 재심사 또는 최신 버전으로의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 출처: Atuna, 2023년 11월 15일자





멕시코-에콰도르 FTA 협상, 참치 관련 분쟁으로 무산 에콰도르의 태평양동맹 가입 가능성 작아져

1년 넘게 진행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와 에콰도르 간의 FTA가 결국 무산되었다. 지난 11월 14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에콰도르가 FTA에 참치와 새우를 포함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멕시코 측은 에콰도르산 참치 통조림이 에콰도르 선박이 어획한 참치로만 가공되었을 경우에만 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조건, 이른바 '폐쇄적 원산지 규정(closed rules of origin)'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에콰도르는 타국 선단이나 운반선에 의해 어획되거나 양육된 참치로 생산한 제품도 포함 가능한

'개방적 원산지 규정(open rules of origin)'을 고수하였다. 이는 유럽 원산지 규정으로 인하여 자국 선단의 어획물을 최대한 유럽 시장에 수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일 에콰도르 참치 업체는 멕시코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에콰도르 어업 부문에 큰 피해를 줄 요구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FTA 협상이 결렬되면서 에콰도르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가입 가능성도 극히 낮아졌다.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가 결성한 중남미 무역 블록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멕시코와의 협정이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 출처: Atuna, 2023년 11월 16일자

美 1~3분기 참치 통조림 수입실적 하락세 지속 전년 대비 10% 감소

미국의 2023년 1~3분기 상온보관 참치 제품 수입액은 4억 3,119만 달러이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고, 태국, 멕시코 등 주요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감소하였다.

미국의 2023년 1~3분기 상온보관 참치 제품 수입량은 9만 4,737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만톤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5년간 최저 수준이다.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4,551 달러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3분기 동안 미국의 수입량은 2만 9,879톤으로, 전년도 3분기 수입량(3만 6,069톤)보다 감소

하였다.

태국의 미국행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5만 3,082톤으로, 미국의 최대 참치 통조림 공급국으로 남았다. 평균 단가는 톤당 4,552 달러로 큰 변동이 없었다. 태국의 미국행 수출량은 올해 들어 매 분기 감소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국 생산업체 측은 구매자 측의 재고가 충분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의 참치 소비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11월 23일자



타이유니온 3분기 순이익, 전년 대비 52% 감소

상온보관 참치 제품 매출 감소 영향

타이유니온은 올해 3분기 수입이 약 9억 5,298 달러로, 상온보관 참치 및 수산 제품 매출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의 3분기 순이익은 2분기보다는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3분기와 비교하면 52.3%나 감소하였다.

3분기 매출은 모든 부문에 걸친 물량 감소, 화물 수익 감소, 평균 판매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 대비 16.8% 감소하였다. 3분기 순이익은 약 3,393만 달러로, 약 754만 달러에 달하는 환차손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2022년 3분기에 환차익으로 인하여 2,227만 달러의 이익을 얻은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타이유니온의 애완동물 식품 자회사인 I-Tail의 실적은 좋지 못했고, 희석효과(회계기간의 보통주 평균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통주를 발행했을 때, 회

계기간의 보통주 평균 시장 가격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희석효과 금액'이라 칭함)로 인한 손실은 약 911만 달러에 달하였다.

3분기 매출액의 47%는 상온보관 식품 부문(참치가 대부분을 차지)이며, 냉동 냉장 부문이 2위, 애완동물 부문과 부가가치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3분기 상온보관 참치 및 수산물 부문의 수입은 4억 4,583만 달러로, 전년 대비 6% 감소하였다. 1~3분기 동안 상온보관 수산물의 누적 매출액은 약 13억 5,000만 달러로, 2022년 1~3분기 대비 2.5% 감소하였다.

타이유니온은 3분기에도 여전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9월부터 참치 가격이 하락하고 주문이 재개되면서 마진률은 20.4%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출처: Atuna, 2023년 11월 7일자

日, 지중해산 양식 참다랑어 연말 수요 증가 예상돼

눈다랑어 수요 낮은 편

일본의 올해 연말 연휴 판매경쟁에서는 지중해산 참다랑어가 주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에는 높은 가격으로 소비가 부진하였으나, 올해는 그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가격대라고 현지 상사 소식통은 전하였다. 소매 판매점의 구매 문의도 강하여, 연말이 다가올수록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중해산 참다랑어의 2022년 12월~2023년 5월 동안 일본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1만 9,730톤이다. 토로(トロ, 주로 참치의 배 부위에 많

은 지방이 많은 살코기로, 지방의 정도에 따라 주토로와 오오토로로 분류) 중에서 주토로(中トロ)의 소매 가격은 전년 대비 약 30%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에는 중국으로 향하는 오오토로(大トロ)도 일본에서의 판매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만 선단의 인도양 눈다랑어는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업체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상사 소식통은 전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11월 16일자



선박용 연료유 비용, 하락세 지속

하락세 계속될지는 불확실

11월 30일 개최될 OPECT+ 회의의 영향으로 원유 가격은 지난주부터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선박용 연료유 비용도 하락하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OPEC 소속이 아닌 산유국의 연합체인 OPEC+는 현지 시각 기준 30일 온라인 각료회의에서 2024년 목표 생산량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주요 시장의 원유 수요 감소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의 감산을 예상하였다.

27일, 국제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98 달러였고,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4.86 달러로, 각각 지난주 대비 3%, 4% 하락하였다.

미국의 원유 재고 비축량이 많다는 점이 가격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현재 OPEC+의 공식 감산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원유를 사려는 위험 심리는 제한적인 상태이다.

27일 세계 평균 MGO 가격은 톤당 946달러였으며,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MGO는 톤당 792달러였다. 이는 선행선이 참치 1톤을 어획하는 데 필요한 연료유 비용이 514.80 달러 내외임을 의미한다. 10월 이후 연료유 가격은 대부분 하락하였다. 지난달 싱가포르 MGO 가격은 971 달러로, 18% 하락한 셈이다.

* 출처: Atuna, 2023년 11월 28일자

프랑스 선사, 쿼터 삭감으로 참치 어선 3척 매각

쿼터 감소 외 세금 및 규제 증가 등 이유

프랑스에 본사를 둔 거대 참치 업체 사프머(Sapmer)는 "회사와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리셔스 국적 참치선 3척을 익명의 남미 선주에게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사는 지난 3년 동안 60% 감소한 쿼터의 대폭적인 감소와 모리셔스에서 회사에 부과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 제약"이 선박의 수익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알렸다.

남미에서 참치 어업을 전문으로 하는 잠재적 구매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 세 척의 선박 인도는 다음 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리셔스의 참치 쿼터는 2021년 1만 500톤에서 2023년 4,300톤으로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모리셔스에서 어획되거나 판매되지 않은 생선에 대한 세금과 모리셔스 통조림 공장에 판매해야 하는 의무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가 동사에 부과되었다.

이번 매각으로 동사는 냉동 참치 선망어선 3척, 이빨고기 냉동 연승어선 4척, 랍스터 냉동 어선 1척 등 총 8척의 어선을 100% 프랑스 선단으로 운영하게 된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11월 13일자



日 참치조합장 “참치 산업, 고유가어가 하락에 직격”

참치 소비 확대, 냉동고 공간 마련 등 목표

일본 가다랑어참치어업협동조합(일명 닛카츠)의 카가와 켄지 조합장은 일간수산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가 상승 및 어가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여, 선박 대부분이 적자 경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였다.

대형 소매판매점의 매출은 회복 추세지만, 어가 하락의 요인인 초저온 냉동고의 공간 부족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은 나라의 각종 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수출도 시야에 넣고 있으나, “우선은 소비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장래를 전망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도는 어가가 대폭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유가도 하락하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은 해외 유가가 약 3배까지 급등하였다.

2022년도까지는 높은 어가가 비용 상승 문제를 상쇄할 수 있었다. 닛카츠에서 취급하는 어류의 2022년도 가격은 냉동 눈다랑어 kg당 1,203 엔, 냉동 황다랑어 kg당 1,028엔, 냉동 남방참다랑어 kg당 2,483 엔이었다.

그에 비하여 올해 눈다랑어 가격은 kg당 979 엔(19% 하락), 황다랑어 가격 734 엔(29% 하락), 남방참다랑어 1,587 엔(36% 하락)으로 급락하였다. 대서양 중부 수역에서 주로 어획되는 눈다랑어 가격은 780 엔까지 급락하였다. 여기에 비용 상승까지 감안하면 이윤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조합장은 전하였다.

조합장은 최우선 과제가 “재고 줄이기”라고 분석하였다. 어가 대책은 급선무지만, 냉동고의 자리를 기다리는 운반선의 장기간 대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어가의 상승세 전환은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아래로부터의 소비 확대를 위하여, 바이어 들이나 도요스시장 측, 대형 소매점 담당자들과 의견 교환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작년 종반부터 어가 하락세가 계속되어 소매점에서 특가 상품으로 판매되면서 매출은 호전되고 있으며, 회전초밥 식당 등에서도 참치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운반선의 정체 문제도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재고를 소화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11월 27일자





WWF “에콰도르, 2030년까지 해양 분쟁 위험 지역”

분쟁 위험 지역 식별하는 모델 사용

WWF는 2030년까지 “해양 분쟁, 식량 불안정, 또는 지정학적 긴장”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식별하기 위해 세계 기후 및 어업 모델을 사용하는 계획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은 한 국가의 어업 분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영양 개요, 경제 수준, 외국 선단의 존재, 분쟁 중인 해상 국경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안보적 요소를 고려한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데이터 가용성을 확장하고 기계 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갈등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원인 이해 및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WWF는 주장하였다.

WWF에 따르면, 세계 2위의 참치 선단을 보유한 에콰도르 및 여러 국가가 참치 자원 및 가공 시설을 보유한 아프리카 대륙은 어업 의존도가 높으므로 분쟁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솔로몬제도와 파푸아뉴기니 등을

포함한 나우루협정당사국(PNA)의 EEZ 또한 해양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콰도르는 이전에 자국 EEZ의 중국 선단에 대한 반감을 표명한 적이 있으며, 또한 자국 EEZ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WWF는 에콰도르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NGO 및 RFMO와 손을 잡았으며, “해양 보호를 위한 이러한 헌신은 향후 수십 년간 기후 위기 및 어업 환경 변화 탐색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WWF는 더 많은 정보 공유 및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와의 통합이 이러한 상황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11월 28일자

日, 참다랑어 어업에 대한 통제 강화 예정

선박 보고 외 감시 장비 및 직책 신설

일본 수산청은 참다랑어에 대한 추가 보고 요건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제 어부들은 총어획량뿐만 아니라 30kg 이상 어획된 개체에 대한 정보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참다랑어 어획량 중 일부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정보가 나온 후 내려진 결정이다. 선박은 30kg 이상의 참치 개체에 대해 선박명, 양륙 항구와 양륙 시간을 제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통업체와 가공업체는 납품받은 생선이 불법적으로 어획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수산청은 생산자가 거래 영수증, QR코드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구매자에게 어획물의 합법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항구에서 참다랑어 어획을 모니터링하는 장비에 5,400만 엔(약 36만 1,000달러)을 지출할 계획이다. 2024년 4월부터 양륙 작업을 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직책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출처: FishNews, 2023년 11월 27일자



스페인, 참치 3개종, 2050년까지 15% 감소 예상 수온 상승으로 일부 종 북쪽 이동 예상

스페인 연구센터 AZTI는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통하여 “2050년까지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참다랑어 3개 종의 전 세계 개체수 규모가 2050년까지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발표하였다.

참치는 기후변화, 어획 압력, 그리고 자연 변동성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연구진은 조사 결과, 1958~2004년 동안 참치와 타 어류 22개 종 중 20개 종이 세기말까지 극지방으로 이동했음이 나타났다고 말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먹이 사슬 상위 종은 이들이 지속가능 어획량 최대치에 가까운 어획 압력을 받는다면, 해수온 및 기후 패턴 변화에 보다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날개다랑어의 경우, 1981~2017년간의 어획 추세를 보면,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치어(Juvenile, 성체와 유체 사이의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의 도래 시기가 10년 단위로 2.3일씩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단이 날개다랑어 어업을 더욱 빨리 시작해야 하고, 눈다랑어 서식지도 좀 더 북쪽으로 이동

했음을 의미한다.

참다랑어, 특히 대형 참다랑어의 경우, 더 깊거나 더 차가운 물에서 이상적인 수온을 찾기 위하여 북서대서양 수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치어는 주 먹이인 멸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비스케이만(Bay of Biscay,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만)으로 계속해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논문에 따르면 이들은 세기말까지 북쪽으로 708km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스페인 참치 선단에 있어 좋은 소식이 아니다. 또한 참다랑어는 서식지가 제한되어 있고 지중해와 멕시코만에서만 산란하며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연구진은 앞으로 열대 수역에서 눈다랑어가 줄어들고 칸타브리아 해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눈다랑어가 북쪽에 분포하는 것은 눈다랑어를 혼획하기 쉬운 열대 선망선에 있어 이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Atuna, 2023년 11월 29일자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분포, 기후 변화로 예측 가능 기후 변화, 클로로필 농도로 예측

지난 수년간 과학자들은 가다랑어의 공간적 분포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 최근 대만 과학자 그룹은 '해양과학저널(Journal of Marine Science)'에 발표한 논문을 통하여, 9개월 후의 가다랑어의 움직임을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가능한 시계열 모델의 조합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 온도(표층수온, SST), 해면 고도이상치(SSHA), 표층수온 전선(SST front), 클로로필(엽록소)-a(Chl-a) 농도와 같은 여러 요인이 WCPO에서 가다랑어의 출몰을 결정한다. Chl-a는 가다랑어의 서식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위성 이미지의 한계와 같은 제한 사항 때문에 가다랑어 출몰예측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Chl-a 요인을 기반으로 한 물고기 분포에 대한 예측 모델은 예측 정확도를 향상하는 더 나은 접근법으로 간주된다.

연구자들은 WCPFC의 정보를 사용하여 1950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미국, 대만, 한국 등 주요 선망 선단의 월별 가다랑어 어획 데이터(FAD, 스쿨조업)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에 대한 월별 예측 접근 방식의 개발 과정을 조사하였다. 또한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계절별 기후 예측을

종분포모델(SDM)과 통합하였다. 또한 네 개의 예측 변수인 SST, Chl-a, SSHA 및 SST front를 통계에 통합시켰다.

그 결과, 연구진은 SST와 Chl-a가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한 두 가지 주요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연구진은 따뜻한 SST(28°C 이상)와 Chl-a가 가다랑어 출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클로로필 정보는 엘니뇨 변화에 대응하여 가다랑어 스쿨 및 서식지 이동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연구진은 '동적 타임 워핑(Dynamic time warping, DTW, 속도에서 달라질 수 있는 두 시간적 시퀀스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한 알고리즘 중 하나)' 방식이 월별 Chl-a 데이터 향상에 사용되어 가다랑어의 출몰을 최대 9개월 전까지 예측할 수 있으며 참치 산업의 잠재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해당 연구는 "엘니뇨 기간 및 가다랑어 분포가 서부의 따뜻한 바다에서 넓게 퍼져 있었던 2019년과 2020년 동안 예측 가능성이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모델은 2021년 라니냐 기간 약 80%의 정확성을 보였다."라고 주장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11월 20일자



中, 오징어 어획량 증가했으나 수출 및 내수 감소

원양 오징어 어업 및 수입 최고치 기록했으나 수출 감소

베이징에 본사를 둔 냉동수산물 무역 플랫폼 Huacai Zhaoyu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원양 오징어 어획량 및 수입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수출은 감소하였다.

Huacai의 공동 설립자 장푸에 따르면, 2023년 현재까지 중국의 원양 오징어 어획량은 75만 7,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원양 어획량의 1/3을 차지하였던 지난해 어획량인 76만 6,000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였다.

장은 지난 9월 엘니뇨로 인하여 관측된 적도 태평양 동부의 해수면 온도 1.5도 상승이 유발한 불확실성을 지적하였다.

지난 2분기부터 중국의 월별 오징어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였다. 장은 올해 수출량이 2022년보다 10% 이상 감소한 50만 톤 아래로 떨어

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반대로, 오징어 수입량은 첫 9개월 동안 35만 톤을 초과하여 작년의 총 33만 4천 톤을 넘어섰다. 장은 페루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장은 중국 내수 소비 감소와 함께 수입 급증 및 수출 부진으로 인해 일부 제품의 재고가 남아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국 오징어 시장이 생산량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부정적인 소비 심리로 2023년을 마감하고 있다고 요약하였다.

장은 “우리는 수출이 어렵고 내수가 취약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징어 산업은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11월 23일자





페루, 3분기 수산물 어획량 32% 감소

3분기 49만 7,200톤 어획

페루 생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페루의 수산물 어획량은 2023년 3분기에 전년 대비 32% 감소한 49만 7,200톤으로 6억 2,860만 페루솔(1억 6,82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량은 32% 감소했지만, 가치는 2% 증가한 것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가치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

생산부에 따르면, 이러한 감소는 주로 첫 번째 멸치 조업 어기의 종료로 인해 간접 식용 원료(어분 및 어유) 생산량이 61%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접 식용 원료 어획량은 18만 3,200톤으로 전년 동기 47만 4,300톤 대비 감소하였다.

이와 반대되는 추세로 사람이 직접 소비하는 어획량은 15% 증가한 31만 4,000톤을 기록하였다.

한편, 직접 소비하는 어획량의 증가는 통조림용 어획량(95.4% 증가)과 신선 소비량(25.6% 증가)의 증

가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생산부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는 냉동 제품(7.5% 감소)과 건조 제품(45.5% 감소)의 어획량 감소로 인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다.

냉동 수산물 생산량의 경우, 9월 출하량은 4만 2,6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3,400톤(7.5%) 감소하였다. 생산부는 "오징어 생산량이 3만 6,400톤에서 1만 5,400톤으로 57.7% 감소한 것이 주요 감소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외에 대구(85.4 % 감소) 및 참치(63.9% 감소)의 어획량도 감소하였다."라고 알렸다.

2023년 9개월 동안 페루의 수산물 어획량은 220만 톤으로 전년 동기의 360만 톤에 비해 감소하였다.

* 출처: Dalekayaokraina, 2023년 12월 6일자





러시아 명태 산업, 생산량 급격한 증가 예측

명태와 연육 생산량을 중심으로 성장률 20% 예상

러시아 명태어업협회(이하, PCA)에 따르면, 10월 까지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명태(H&G)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8% 증가했으며, 전체 명태 생산량은 53% 급증하였다. 명태 연육 생산량은 약 4만 톤으로 3배 증가하였다. 반면, 명태 필렛 생산량은 소비자 수요 감소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수출 시장 부진에 따라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다. 명태 민스 생산량도 35% 감소하였다.

"현재의 생산 역학을 고려할 때 해상 및 육상 공장의 명태 제품 총생산량은 20% 증가하여 연말까지 약 11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PCA의 예측에 따르면 냉동 명태 생산량은 90만

톤, 명태 필렛은 10만~11만 톤, 민스는 2만 톤, 연육은 5만 5,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러시아 명태 어획량 중 해상에서 가공되는 비율은 88%에 달하며, 나머지 12%는 육상 공장에서 가공된다.

러시아의 전체 명태 어획량은 10월까지 180만 톤을 넘어 지난해 대비 7%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3년 명태 쿼터의 88%를 차지한다.

협회장은 현재의 역학 관계와 미사용 쿼터량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전체 명태 어획량은 192만 톤에서 195만 톤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11월 9일자

러, 어획량 증가세 유지

11월 16일까지 약 480만 톤 어획(11% 증가)

극동 수역의 생산량은 360만 톤을 초과하여 작년에 비해 16.3% 증가하였다. 명태 180만 톤(4만 1,900톤 증가), 청어 31만 2,200톤, 가자미 7만 2,200톤, 대구 10만 4,300톤, 태평양 연어는 60만 8,600톤(13% 증가)을 어획하였다고 러 연방수산청을 알렸다.

북부 수역에서는 대구 23만 8,800톤, 대구 6만 9,000톤, 카펠린 2만 3,000톤을 포함하여 41만 7,600톤을 어획하였다.

서부 수역에서는 6만 5,500톤(1.5 % 증가)을 어획하였으며, 이중 유럽 청어 3만 3,900톤, 발트

해 청어 2만 2천톤(1,700톤 증가)을 어획하였다.

아조프-흑해 수역에서는 멸치 8,700톤과 유럽 청어 1만 4,800톤을 포함하여 3만 4,100톤을 어획하였다. 볼가-카스피해 수역에서는 7만 1,300톤(8.2% 증가)을 어획하였으며, 이중 카스피해 청어는 2만 6,000톤(2,600톤 증가)을 어획하였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협약 수역 및 공해에서 러시아 어선은 지난해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50만 톤을 어획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3년 11월 14일자



알래스카 명태 어획량, 2024년에도 높은 수준 예상

허용 어획량 21% 상향 권고

미국 알래스카주의 명태 어업은 2024년에도 높은 어획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이하, NPFMC)의 어류 계획 패널 위원들은 수요일(11월 15일) 시애틀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년도 베링해 명태 어업의 허용 가능한 생물학적 어획량(이하, ABC) 수준인 230만 톤에 대한 권고안을 승인하였다. 이는 작년 베링해 어업에 대한 ABC 권고치인 190만 톤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이 수치는 예비 수치이며 규제 당국이 총허용어획량(이하, TAC)의 상한선을 고려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작년의 TAC는 결국 130만 톤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2022년 목표치인 111만 톤보다 16.7% 높은 수치였다.

과학자들과 어업 관리자들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하, NOAA)의 어업 관리 정책에 따라 자원 상

태, 바이오매스 규모,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TAC를 결정하는데, 이 역시 200만 톤을 초과할 수 없다.

수요일 회의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인이 논의되었으며, NOAA 생물학자 짐 이아넬리(Jim Iannelli)는 현재 어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18년산 어류의 연령에 대한 몇 가지 우려를 지적하였다. 명태 가격도 작년보다 하락하였다.

2024년에는 명태 TAC도 증가하여 시장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다.

NPFMC 계획팀은 화요일(11월 14일) 회의에서 이 수역의 ABC를 23만 2,543톤으로 권고하였는데, 이는 2023년 ABC인 14만 8,937톤보다 56% 이상 높은 수치이다. 2023년 TAC는 13만 7,691톤으로 결정되었다.

* 출처: Dalekayaokraina, 2023년 11월 21일자

미국, 새로운 명태트롤선 건조

마-러간 명태 자원 전쟁 지속

30년 만에 미국에서 건조된 명태 트롤 어선인 '아틱 피오르드'호가 북태평양에서 해상 시험 운항을 시작하였다. 전장 100미터의 이 선박은 시애틀에 본사를 둔 Arctic Storm Management Group이 주문하였다. 이 선박은 2024년 A 시즌에 베링해에서 명태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1974년 건조된 '아틱 피오르드'를 대체 예정이다.

새 트롤 어선의 목표는 조업 손실 시간과 어획물 폐기량을 줄이고 선박의 운영 및 기술 변수를 개선하여 어업에서 수익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 선박은 명태 필렛 생산 외에도 주요 생산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어분과 어유로 가공할 예정이다.

* 출처: FishNet, 2023년 11월 20일자



EU, 2026년까지 러시아 흰살생선 무관세 대상 제외 중국을 통해 EU로 들어오는 러시아산 생선, 표준 관세율 적용

유럽 이사회는 월요일에 1월에 발효되는 자물 관세 할당량(이하, ATQ) 제도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산물에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농수산물식품부 장관은 "이 규정을 통해 우리는 수산 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유럽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수산 가공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EU 어업 부문의 이익도 고려하였다."라고 말하였다.

EU의 수산물 생산이 위협받지 않고 가공 산업에 적절한 수산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는 ATQ를 채택하였다.

이사회는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의 관계 악화를 고려할 때, 유럽연합의 대외 활동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행동 및 원칙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으로부터의 수입품이 이 규정의 범위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생선은 여전히 EU로 수입할 수 있지만, 이 제안에 따라 알래스카 명태 필렛 블록의 경우 13.7%,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H&G) 대구의 경우 12%의 표준 관세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경유하여 EU로 들어오는 러시아산 생선도 원산지가 러시아로 유지되므로 더 이상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관세가 적용된다.

유럽 어류가공업자무역업자협회(AIPCE-CEP)의 최신 연례 어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1년 EU 명태 수입량의 25%를 차지하며 약 20만 톤에 달한다. 독일은 명태의 주요 수입국이며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11월 27일자

노레보, MSC 인증 취득 극동 명태 어업 인증

러시아 수산 대기업 노레보 그룹이 지난 11월 1일 러시아 극동 명태 어업에 대한 해양관리협회의 회(이하, MSC) 인증을 취득하였다. 노레보 산하의 6개 계열사 13척이 인증 대상이 되었다.

대상이 되는 어장은 북오호츠크, 서캄차카, 캄차카쿠릴, 동사할린 4개 어장이다. 해당 어장의

2021년 TAC는 118만 6,200톤으로, 이 중 노레보는 약 12%에 해당하는 14만 1,782톤을 어획할 수 있다.

노레보는 바렌츠해 명태, 해덕, 대서양 대구 MSC 인증 또한 보유 중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11월 15일자



러, 11월 말까지 490만 톤 이상 어획

지난해 어획량보다 9.6% 증가

어업 및 통신 모니터링 시스템센터에 따르면 2023년 11월 28일까지 러시아 전체 어획량은 490만 톤에 달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9.6% 증가했다.

극동 수역에서는 생산량이 15.1% 증가하여 370만 톤을 넘어섰다. 명태는 2만 1,100톤 증가한 180만 톤을 생산하였다. 청어는 34만 톤, 가자미는 7만 3,400톤, 대구는 10만 6,600톤을 어획하였다. 태평양 연어 생산량은 60만 8,700톤을 어획하여 2021년보다 13% 증가하였다.

11월 28일 현재 연해주 수산물 보관고의 총 적재율은 51%이다. 어류 터미널에는 5만 8,500톤의 신선 냉동 수산물이 있다.

북부 수역에서는 대구 24만 8,300톤, 대구 7만 1,800톤, 카펠린 2만 3천 톤을 포함하여 43만

2,700톤을 어획하였다.

서부 수역에서는 7만톤을 어획하였으며, 이중 유럽 청어는 3만 5천톤, 발트 청어 2만 3천톤(지난해 대비 1천톤 증가)을 어획하였다.

아조프-흑해 수역에서는 멸치 9,300톤과 유럽 청어 1만 4,800톤을 포함하여 3만 6천톤 이상을 어획하였고, 지난해 대비 4,800톤을 더 어획하였다.

볼가-카스피 수역에서는 2022년보다 4.3% 증가한 7만 6,800톤을 어획하였으며, 여기에는 2만 7,400톤(1,800톤 증가)의 카스피해 청어가 포함된다. 이외에, 외국 배타적 경제 수역, 협약 수역 및 공해에서 러시아 어선은 51만 7,000톤 이상을 어획하였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3년 11월 28일자

러, 더 효율적으로 조업

쿼터 소진율과 권장 어획량 비율 증가

2023년 TAC는 364만 1,000톤이었으며, 실제 어획량은 308만 톤이었다.

러시아의 주요 어획 대상(어획량 기준)인 명태 조업 어기에 좋은 지표가 나타나, 11월 28일까지 182만 톤 이상이 어획되었다.

11월 23일 캄차카에서 열린 극동과학어업위원회(FESC)에서 러연방수산청장이 언급했듯이, 새로운 트롤 어선으로 선단이 보충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명태 TAC 소진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미 올해부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

고 말하였다.

또한, TAC가 설정되지 않은 '비할당량' 어업의 어획량도 증가하였다. 권장 어획량의 소진율은 거의 8% 증가하였다. 2022년에 24.2%(46만 1천 톤)가 어획되었다면, 2023년에는 26%(64만 3천 톤) 이상이 어획되었다. 동시에 어획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것이 과제이다.

11월 28일까지 러시아 연방의 총생산량은 494만 톤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9.6% 증가하였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3년 11월 28일자



명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

피시 앤드 칩스 원료 명태로 대체

국제해양탐사협회의회는 대구의 개체 수가 심각하게 감소함에 따라 페로 제도 수역에서 2년 동안 대구 조업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20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 약 3만 톤의 대구가 잡혔다.

오늘날 많은 대구 종의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와 노르웨이가 조업하는 바렌츠해에서 러시아-노르웨이 공동 어업위원회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2024년 할당된 대구의 총허용 어획량은 올해의 20% 감소하였다. 러시아 할당량은 193,124톤이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온난화가 대구의 번식 능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대구 개체군의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구에 따르면 대구는 9.6°C 이상의 수온에서는 산란하지 않으며, 이 온도에 도달하면 이미 번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 산란에 유리한 수온인 바렌츠해에서도 우려스러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3년에 정점을 찍은 후 대구 개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대구과에 속하는 또 다른 어종에 대해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다. 바로 명태다.

최근 극동 과학 및 수산 위원회 회의에서 과학자들은 상업용 명태 자원의 안정성에 주목하였다. 오토츠크해 북부의 명태 자원은 평균 이상이며, 동사할린 하부 수역의 어업 전망도 긍정적이다.

대구 공급이 감소하면 명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인기 있는 생선 요리인 피시 앤드 칩스에서 대구는 명태로 대체되었다.

* 출처: FishNet, 2023년 11월 27일자

러, 내년도 명태 어업 긍정적 평가

2027년 이후 자원량 상승 예상

산업 과학은 내년 오토츠크해에서 명태의 어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북쪽 3개 수역과 동사할린 하부 수역 모두에 적용된다.

명태 A시즌은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북부 오토츠크해 수역의 명태 자원량은 평균보다 높아 상당히 안정적일 것으로 톨로 센터 부국장은 말하였다. 명태 자원량은 감소 추세지만 2027년 이후에는 그 추세가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토츠크해 어업 할당량 선정과 쇄빙선 추가 배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또한, 2024년의 어군 분포와 이동은 올해와 동일한 형태일 것으로 예상한다.

TAC 증가로 다가오는 "A" 시즌 동안 명태 어획량은 증가하는 등 전문가들은 명태 어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출처: FishNews, 2023년 11월 24일자



러, 12월 1일부터 전자 조업 일지 의무화 선상에서 전자 허가증 발급 및 허가 변경 처리 가능

2023년 12월 1일부터 법률에 따라 어업, 운반, 제품 생산 선박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장착하여 조업일지를 전자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전자 조업일지 작성 의무는 주기관 출력 55kW 이상, 총톤수 80톤 이상의 어선 중 위치발신장치를 장착한 어선의 선장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전자 조업일지의 도입으로 선박의 문서 흐름이 원활해지고, 선박 일일 보고 전송이 간소화되며, 수산 생물 자원

어획량 집계 처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 조업일지의 최종 버전에는 관리 당국, 어민, 그리고 시스템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어업 및 통신 모니터링 시스템 센터의 희망 사항이 고려되었다.

전자 조업 일지 시스템을 러수산청 공공 서비스 시스템과 통합하면 선박이 선상에서 전자 허가증 및 허가 변경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허가증에 따라 어획한 어획물에 대한 위생 증서 발급도 가능하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3년 11월 30일자

벨라루스, 러 명태 쿼터 70% 이상 어획

양국의 식량 안보 분야 협력 발전

어업 분야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교류가 강화되고 있다.

벨라루스의 극동 명태 어획량은 2023년 4만 톤에 육박하고 있다.

2002년 3월 13일 러시아 연방과 벨라루스 공화국 간의 정부 간 협정에 따라 2022년 12월 9일 제20차 러시아-벨라루스 어업위원회 의정서에 근거하여 2023년도 극동수역에서 벨라루스는 명태 쿼터를 할당받았다.

정부 간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2023년 3월 러 연방 수산청 연해주 지부는 오희츠크해와 베링해에서 총 5만톤의 명태를 잡을 수 있는 4개의 허가

를 벨라루스 측에 발급하였다.

조업은 러시아-벨라루스 합작 기업이 수행한다. 현재까지 3만 7,700톤의 명태를 잡아, 할당된 쿼터의 73.4%를 어획하였다.

러연방수산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28일 현재 명태 생산량은 182만 톤에 달하였다.

연해주 연방수산청에 따르면, 벨라루스 공화국의 어획 쿼터 활용은 양국 간의 공동 유대를 강화하고 양국의 식량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킨다.

* 출처: FishNet, 2023년 12월 5일자



마케팅 강화에 투자하는 명태 생산업체

회비 및 매출 10% 증가 예상

미국 명태 생산자 협회(이하, GAPP)는 내년에 명태 홍보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단체는 월요일에 회원사들이 명태의 더 많은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회비 인상을 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사회는 지난 몇 년 동안 GAPP가 창출한 성공과 추진력을 계속 활용하고 명태 브랜드를 계속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GAPP의 회비가 10% 인상되어 4월에 시작되는 다가오는 GAPP 회계연도의 마케팅 업무를 지원할 수입이 46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협회장은 밝혔다.

다가오는 회계연도의 공식 예산은 3월에 승인될 예정이다. 협회장은 이번 예산 증가로 인해 2024년은 전년 대비 매출도 작년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회비 인상과 더불어 GAPP가 NOAA 수산국

의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3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회원인 개별 기업은 베링해 명태의 총허용 어획량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협회장은 이번 회비 인상을 승인함으로써 GAPP 이사회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추가 자금의 대부분이 성공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회원사들에게 분명히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올해 미국 생산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명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러시아가 할인된 가격으로 명태를 공급하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맥도날드의 필레오피시 버거 등 수산물 업계의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 사용하는 필렛은 계속해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12월 4일자





日 10월 말 꽁치 어획량, 전년대비 약 40% 증가 1만 5,471톤 양륙

일본 전국 꽁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2023년 어기 꽁치 양륙 상황의 첫 집계를 지난 11월 7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10월 말 시점의 꽁치 양륙량은 1만 5,471톤(전년 대비 40% 증가)으로 회복되었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의 선행 통계 발표에 따르면, 11월 1~7일 시점 꽁치 양륙량은 3,023톤이므로, 2022년 어기 최종 어획량(1만 7,910톤)과 2021년 어기 최종 어획량(1만 8,291톤)을 넘어서면서, 5년 연속 어획량 최저치 경신을 벗어날 것이 확실시되었다.

일본의 이번 어기는 초기에 먼 공해 어장에서 시작되었고, 2년만에 입어한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이 허사로 돌아갔으나, 일본 근해에 산발적으로 어장이

형성되면서 오랜만에 소형선이 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10월 하순부터는 오호츠크해 어장이 활성화되면서 5년 만에 최저치 경신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어획물의 어체 크기가 작아 선어용으로는 아슬아슬한 수준인 마리당 110~120g조차 찾기 어렵고, 대부분 100g 미만이기 때문에 선어용 제품의 유통이 둔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말 시점의 평균 단가는 10kg당 4,893엔(22% 하락)이며, 양륙된 어획물의 총금액은 75억 7,019만 엔(9% 증가)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어획물을 양륙한 척수는 1,044척(53% 증가)이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11월 9일자





日, 러시아 수역 공치 쿼터 20% 감소

2024년 협상 타결...공치 쿼터 약 2만 6,000톤

일본 수산청은 지난 12월 7일, 제40회 러-일 어업 위원회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24년 양국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량은 2023년 대비 6,000톤(12%) 감소한 4만 4,000톤이 되었다. 일본이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 가능한 공치 쿼터는 전년 대비 6,000톤(19%) 감소한 2만 5,824톤이다. 수산청은 전체 쿼터가 감소하면서, 최근 러시아 수역 어획량이 적은 공치가 감소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한편, 공치 이외의 쿼터는 오징어 5,619톤, 대구 3,200톤, 정어리 2,822톤, 고등어 4,194톤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총 척수 또한 전년과 같은 585척이다.

러시아의 일본 수역 쿼터는 고등어가 8,000톤 (20%) 감소한 3만 2,000톤, 정어리가 2,000톤 (25%) 감소한 1만 톤, 짧은수염대구가 전년과 동일한 2,000톤이다. 총 척수는 전년 대비 10척 감소한 79척이다.

고등어, 정어리를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 어선에 대해, 일본 미야기현 킨카산 섬으로부터 후쿠시마현 남단까지 13마일 이내의 수역에서의 조업이 새롭게 금지 설정되었다. 또한, 이와테현 북부에서 후쿠시마현 남단까지의 동시 입어 척수를 8척 이내로 하는 제한도 추가하였다. 수산청은 이러한 조치가 일본-러시아 간 조업 갈등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전년도에 도입한 이바라키현 연안 15마일 이내의 조업 금지 조치와 동해 일본 수역 전역에서의 3월 16일~11월 14일 동안의 조업 금지 등은 유지되었다. 러시아의 이바라키현 연안 입어 척수는 2023년보다 1척 증가한 6척으로 정해졌다.

해당 회의는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매년 일본-러시아 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 쿼터 등의 조업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12월 8일자





美 언론, 中 원양어업 강제노동 문제 주목

美 정계의 中 수산물 수입 심사 강화 요구 높아져

미국 정치·시사 전문지 폴리τικο(Politico)는 지난 11월 21일 워싱턴에 본사를 둔 비영리 저널리즘 조직 The Outlaw Ocean Project의 중국 원양어업 관련 탐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포클랜드제도, 갈라파고스제도, 감비아, 북한 인근 수역 등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단 및 최종 수출을 위하여 어획물을 가공 및 처리하는 과정 등을 약 4년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인신매매 및 IUU 연루 중국 선단의 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구르 및 북한인이 동원되는 것을 기록하였으며, 각종 자료 및 데이터를 통하여 추적한 끝에 이러한 과정에서 조달된 명태, 연어, 대구 등 다양한 어종이 미국 연방정부 프로젝트, 학교, 군, 교도소 등의 공공시설에 사용되었고,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 민간 기업에도 유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강제노동 연루 수입품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갖은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미국 뉴욕의 시사 주간지 뉴요커(The New Yorker)는 지난 10월 9일 The Outlaw Ocean Project 및 위구르, 신장자치구 관련 인권 단체와 조사한 탐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의 보도에 따르면, 위구르인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 각지의 산업 분야에 강제 파견되는데, 이 중에는 미국 및 유럽으로 수출되는 수산물 가공 공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강제 노동 인력을 사용한 산업이

미국 정부 또는 국제 인권 단체, 인증 기관 등의 감시를 피해 가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된 수산물이 미국으로 유입됨을 지적하였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11월 14일, 미국 수산물 수입감시제도 대상 어종 확대 등을 담은 새 규칙안을 철회하고, 해당 제도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중국산 수산물 수입 심사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 정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프랭크 팰로니(Frank Pallone, Jr.) 미국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지난 12월 4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에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경보호국은 국제 및 국내 무역, 안전, 노동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수입된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수입 수산물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및 모든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기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였다. 팰로니 의원은 상기한 뉴요커의 탐사 보도 내용을 해당 서한의 근거로 삼았다.

지난 10월에는 미국 국회의원 2인이 Outlaw Ocean Project의 보고서를 근거로,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 산동성 및 랴오닝성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공개보류명령(WRO)’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 출처: Politico, 2023년 11월 21일자, The New Yorker, 10월 9일자, Intrafish, 12월 5일자



美, 수산물 감독 확대안 철회 현행 SIMP 제도 운영하면서 재검토 예정

미국 수산물 수입감시제도(SIMP)의 대상 어종 확대 등을 담은 새 규칙안에 대해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현지 시각으로 11월 14일, 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안건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하고 있었다. NOAA 측은 “의견 공모 등으로 받은 지적에 근거하여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라며, 해당 제도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IUU 어업 방지를 위하여 미국이 2018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현재는 새우나 통돔(적색통돔), 다랑어(날개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 참다랑어), 털게, 대구, 전복 등 13개 종

이 대상이다. 반면 명태나 연어 등 수입 어종의 60%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제안된 새 규칙안은 현재의 13종에 더해 오징어나 장어, 카리브해산 대하 등도 포함하였다. 다랑어의 대상종을 확대하고 방어도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통돔은 통돔과의 모든 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NOAA는 현행 제도의 운용을 계속하면서 업계 관계자, 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연계하여 이 제도의 재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11월 16일자

美 의회, 러시아산 생선 퇴치를 위한 그룹 설립 중국과 러시아의 수입 대응

미국 의회 내에서 어류 및 수산물 분야에서 보호주의 정책 지지자들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정치 그룹의 창설을 선언하였다. 이 그룹의 목적은 외국 상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미국 어패류 생산자와 어촌 공동체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외국 제품은 종종 품질 및 환경 친화성에 대한 미국 표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조업할 수도 있다.

이들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어업에 피해

를 주는 약탈적 트롤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환경 측면으로 유해하고 비윤리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세계 시장에 넘쳐나는 어류 가공도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 어업은 미국과 해외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양가 있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패톨라 하원의원은 주장한다. 또한 어업은 국가의 식량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원의원은 강조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3년 11월 10일자



美, 국가 필요에 따라 어민 지원

명태, 연어 정부 구매 건수 및 구매액 증가

미국은 올해 명태와 연어에 대한 조달 개입을 강화하였다.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농무부 산하에 수산물 전문 부서를 신설 계획이다.

미국 농무부는 어민들의 요청에 따라 명태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발표하였다. 370톤의 제품 출하가 2024년 1분기로 예정되어 있다. 다른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구매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과 연방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올해 농무부는 업계 요청에 따라 연어와 명태 구매 건수를 늘렸다. 2023년 미국 정부는 이미 2억 4천만 달러 이상을 알래스카 연어와 명태 구매에 지출하였다. 2022년에는 총 1억 6천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나, 2024년 구매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 연어류에 대한 가격 하락으로 이미 어민과 가공업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가공업자들은 작년에 기록적인 연어 어획량과 세계 및 국내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한 과잉 재고를 그 원인으로 여긴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수산업체들은 수산물의 국가 조달을 늘리기 위한 입법 계획을 지지하였다. 또한 농업부 산하에 수산 정책 전문 부서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현재 농업부가 시장의 공급 과잉에 대응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은 전문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 출처: FishNews, 2023년 11월 9일자

美, 식물성 수산물 시장 5년간 28%씩 성장 예상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요구 충족

미국의 식물성 수산물 시장은 2022년에 2,08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8년에는 9,32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IMARC 그룹은 전망하였다. 이는 27.6%의 연평균 성장률이다.

미국에서 식물성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주요 동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제품 구매는 환경을 생각하는 오늘날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식물성 개발 및 배합의 발전으로 실제 수산물의 맛, 질감, 영양가를 정확하게 모방한 더 나은 제

품이 탄생하였다. 이는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기 편리하며 제품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 세계 식물성 수산물 시장 규모는 2031년까지 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Allied Market Research는 추산하였다. 연평균 성장률은 4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FishNet, 2023년 12월 1일자



제42차 CCAMLR 연례회의 개최

과학과 어업의 조화롭고 건전한 접근 필요

호주 호바트에서 제42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CCAMLR) 연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27개국의 회원국과 8개국의 옵서버 국가, 다수 국제기구 및 NGO 등이 참석하였다.

제42차 CCAMLR 회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는 크릴 및 이빨고기 자원 관리, 협약 수역 내 해양 보호 구역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기후 변화였다.

최근 몇 년 동안 CCAMLR는 충분한 과학적 입증 없이 여러 국가의 영향을 받아 남극 반도 하부 수역(48.1)에서 크릴 어업 관리 체계의 긴급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남극 반도의 생물 생산 수역에서 어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크릴 어업의 가장 효과적인 기간 TAC 감소 및 생산성이 낮은 수역으로 조업선 이동, MPA 설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존 보존 조치(CM 51-07 및 CM 51-01)를 연장하여 48 수역 크릴 어업 관리에 대한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더욱 발전시켰다.

협약 수역 내 이빨고기 어업에 대한 규제 시스템의 개정은 CCAMLR의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현재 CCAMLR 보존 조치에 따른 어업 및 자원 과학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방법론과 효과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2018/2019 어기부터 중단되었으며, 러시아 측이 반복적으로 증언 한 바와 같이 효과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 위원회는 58.4.1 하부 수역의 이빨고기 어업이 2023/24 어기 동안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48.3해구(남조지아 섬 소해구)의 파타고니아 이빨고기(D. eleginoides) 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긴 논의가 진행되었다. 러시아 측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자원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해당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지 못하며 보존과 합리적 이용 간의 균형 필요성에 따라 재고되어야 하므로 48.3 소해구의 이빨고기 개체군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협약 제2조). 2023년 회기간 동안 열린 이빨고기 자원 관리에 관한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의 입장을 반박하였다. 위원회는 48.3 하부 수역의 이빨고기 어업이 2023/24 어기에도 폐쇄키로 하였다.

긴 논의의 주제는 폐쇄된 48.3 소해구에서 2021/22 및 2022/23년 폐쇄 어기 동안 CCAMLR 보존 조치를 위반하여 이빨고기 조업을 한 영국 선박 3척(아르고스 조지아, 노르딕 프린스, 아르고스 헬레나)의 IUU 활동으로, 이는 CCAMLR 협약(IX, XXI 및 XXII 조항)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위원회는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의 입장에 따라 사무국의 관련 정보를 사용하여 영국 국적 선박을 IUU 선박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5년째 위원회는 CCAMLR 협약 수역에서 MPA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통일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위원회는 지구 기후 변화가 남극과 주변 해양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후 변화가 환경 조건 및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를 과학위원회 활동에 포함하고 국제기구(SCAR, SCOR, IUCN)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 출처: FishNet, 2023년 11월 20일자



러 수산물 협회, 페로제도 수산물 금수조치에 반발 어획량이 청어와 고등어 공급을 대체 못 할 것으로 예상

러시아 최대 수산물 무역협회가 페로 제도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을 금지하려는 계획을 포기할 것을 러시아 농업부에 요청하고 있다.

20개 이상의 러시아 수산물 수입업체가 소속된 러시아 수산물 가공 및 무역협회와 30개 이상의 수산물 수입 및 가공업체가 소속된 어업 연합은 이러한 수입 금지가 러시아 국내 시장의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 수산청은 올해 초 페로 제도 정부의 러시아 어선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10월 말 연방 정부에 페로제도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제안하였다.

러시아는 주로 페로제도에서 냉동 청어, 고등어, 카펠린을 수입하고 있으며, 러시아 어업 회사들이 이러한 어종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제안된

조치는 국가의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수산청은 밝혔다.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 페로 제도 수산물의 양은 14만 4,100톤에서 7만 1,500톤으로 50.4 % 감소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수산물 업계 경영진은 수입 금지가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어획량은 국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하지 않다고 한다.

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매년 페로제도에서 약 3만 5,000톤의 대서양 청어와 4만 톤의 대서양 고등어를 수입하는데, 이는 러시아 어획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국내산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좋아 가격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11월 14일자

러 은행장, 조선 산업의 침체 상황을 말하다 최소 2개의 새 조선사 건설 필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VTB 은행의 사장 겸 경영 이사회 의장은 현재 러시아 조선 산업은 역량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5~7년 안에 러시아는 이미 효율적인 조선 산업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난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의 국영 주식을 VTB 은행에 양도하는 법령에 서명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유형의 선박에 대해 매우 많은 수의 주문을 받았으며 매우 큰 수요가 있으나, 조선업체들이 이 주문을 완전히 충족시키기에 생산 능력과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 적어도 2개(상트페테르부르크, 극동)의 새로운 조선사 건설이 필요하다”라고 은행장은 말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3년 11월 28일자



아일랜드 어민, 2,500만 유로 지원 받아

EU로부터 브렉시트 영향 완화 목적

아일랜드 수산업계는 최근 유럽연합이 현지 수산물 가격 급등과 소비 침체로 이어진 쿼터 축소와 국가 선단 축소 등 브렉시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500만 유로(2,650만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 것을 환영하였다.

대부분의 아일랜드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지원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번의 지원책으로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아일랜드 수산물 가격은 브렉시트의 영향이 아일랜드 선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21년 같은 달에 비해 1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

간 전체 물가 상승률 6.3%를 훨씬 상회하며 다른 단백질 공급원의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이다. 냉동 생선 가격은 2년 동안 28%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가금류 가격은 24% 상승하였다.

일부 국내 언론은 높은 수산물 가격의 원인을 선박의 화석 연료 의존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아일랜드 어류 생산자 단체(IFPO)장은 2023년 아일랜드 수산물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 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40만 톤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농업을 포함한 다른 주요 식품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설명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11월 13일자

노인이 섭취를 줄여야 하는 어종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잦은 섭취 지양 필요

일부 종류의 생선을 먹는 것은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 물고기에는 인,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유황이 우세한 인체 미네랄 요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생선에는 철, 구리, 망간, 코발트, 아연, 몰리브덴, 요오드, 브롬, 불소 및 인체에 중요한 기타 요소도 풍부하다.

전문가들은 식단에 생선을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더 해로울 수 있다.

영양사 엘레나 솔로 마티나는 노인이 가장 피해야 할 어종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전문가에 따르면

틸라피아가 이에 해당한다. 양식 조건을 위반하고 먹이를 주면 독소와 중금속이 축적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방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노인에게 이런 물고기는 특히 위험하다.

틸라피아에는 다른 물질과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몸이 건강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먹으면 거부할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다.

* 출처: ktv-ray, 2023년 11월 18일자



파도의 말

이 해 인

울고 싶어도
못 우는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울어줄게
마음 놓고 울어줄게

오랜 나날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받은
모든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푸르게 푸르게
내가 대신 노래해줄게

일상이 메마르고
무디어질 땐
새로움의 포말로
무작정 달려올게





11월 오징어 국내 동향

생산량 전월 대비 74% 감소, 소비자가격은 보합

□ **생산동향**(11월 오징어 생산량 838톤으로, 전월 대비 7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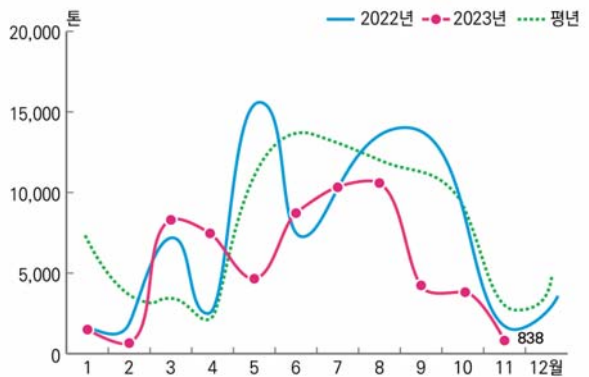
11월 오징어 생산량은 838톤으로 연근해산 생산 및 원양산 반입량이 줄면서 전월 대비 73.8% 감소하였다.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51.2%, 68.6% 적은 수준이다.

11월 연근해산 생산량은 전월 대비 92.1% 감소한 94톤으로, 관측 이래 가장 부진하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해안지역 위판량이 11월 중순 이후 크게 감소하며 전월 위판량의 10%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강릉시수협(34톤), 여수수협(19톤), 죽변수협(9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양산 반입량은 전월 대비 63.0% 감소한 744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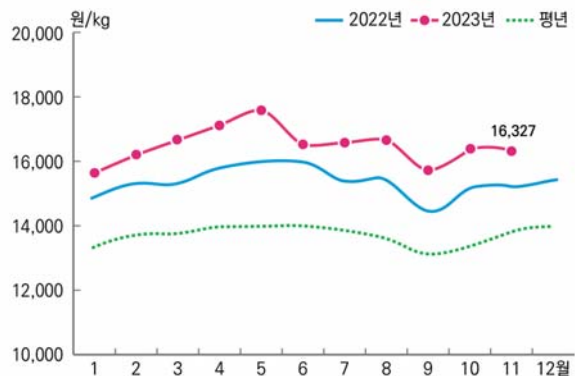
□ **가격동향**(11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평년 대비 여전히 높아)

11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8,705원으로 전월 대비 13.6% 상승하였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도 각각 32.3%, 33.9% 높았다.

오징어(신선냉장)는 생산 부진으로 유통량이 많지 않아 소비자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공급이 줄면서 5월 크게 상승한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였으나, 10월부터 상승폭이 커졌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16,327원으로 정부비축물량 방출이 계속되며 전월과 비슷했으나,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각각 6.8%, 17.9% 높았다.





□ 수출입동향(11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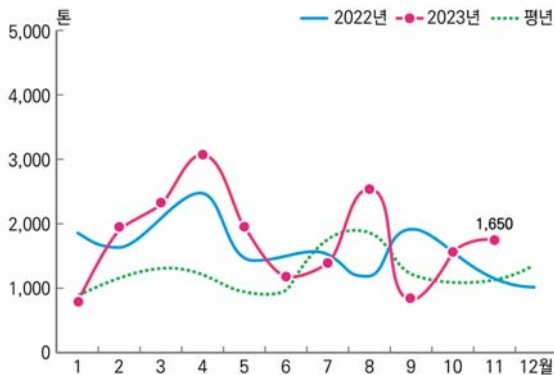
11월 오징어 수출량은 전월 대비 6.9% 증가한 1,650톤으로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45.8%, 42.9%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685톤), 미국(538톤) 순이었으며, 특히 미국으로 건조 오징어 수출이 전월 대비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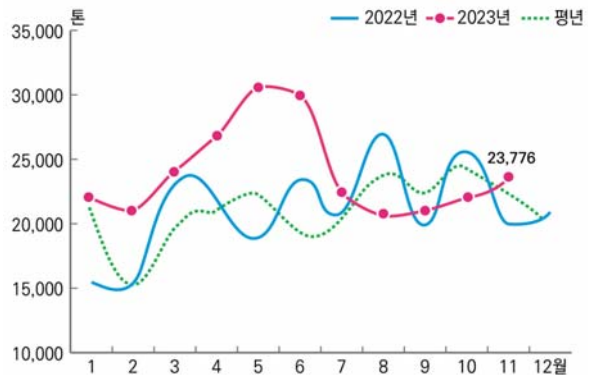
11월 오징어 수입량은 2만 3,776톤으로 전월 대비 8.2% 증가했으며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18.2%, 7.4% 많았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11,267톤), 페루(6,870톤)였으며 중국산은 냉동 및 조미오징어, 페루산은 기타 및 냉동 제품 비중이 높았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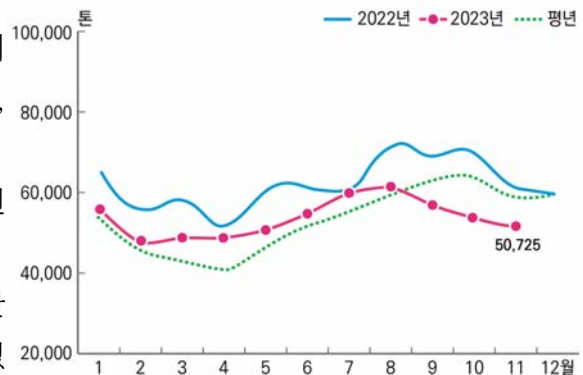


□ 재고동향(11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6% 감소)

11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5만 725톤으로 전월 대비 6.0% 감소하였으며,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7.3%, 13.5% 적었다.

이는 원양산 반입량 감소와 함께 연근해산 생산 부진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연근해산 재고량은 작년 대비 40.2% 감소한 1만 2,478톤이었으며, 원양산 재고량은 3만 8,247톤이었다.



* 출처: KMI 수산물측 12월호



11월 명태 국내 동향

원양명태 반입량 감소, 소비자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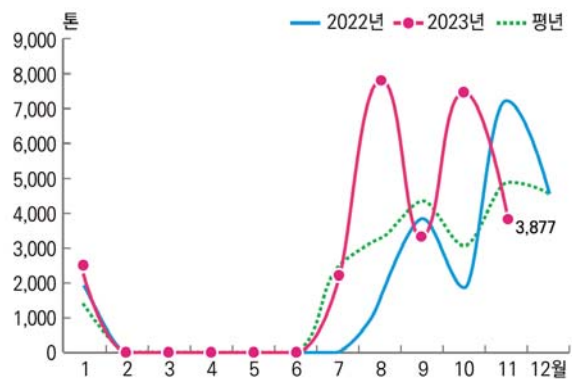
□ 생산동향(11월 원양명태 반입량, 전월 대비 감소한 3,877톤)

11월 원양명태 반입량은 전월 대비 47.8% 감소한 3,877톤이었다.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46.6%, 21.8% 적었다.

2023년 누적 반입량은 2만 7,186톤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67.6%, 36.8%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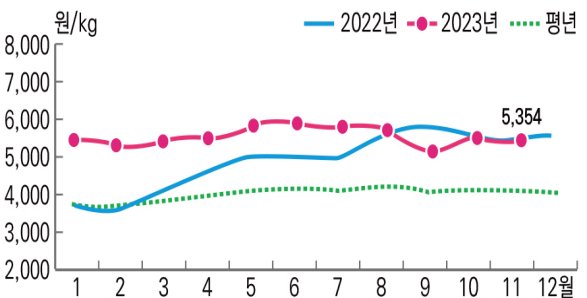
한편, 11월 30일까지 어획된 원양 명태는 2만 8,191톤으로 작년(18,328톤)에 비해 53.8% 많았으며, 쿼터 소진율은 98.9%였다.



□ 가격동향(11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상승한 kg당 5,354원)

11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전월 수준인 kg당 2,260원이었다. 평년과 비슷했으나 작년 동월보다는 7.8% 낮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354원으로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일부 대형소매점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되어 전월보다 1.6% 하락했으며, 작년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 수출입동향(11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36% 증가한 3만 6,654톤)

11월 명태 수출량은 6,617톤으로 전월 대비 23.3% 감소하였다.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66.3%, 39.3% 적었다.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제품형태별로는 냉동필렛(2,449톤), 냉동연육(1,669톤), 냉동명태(1,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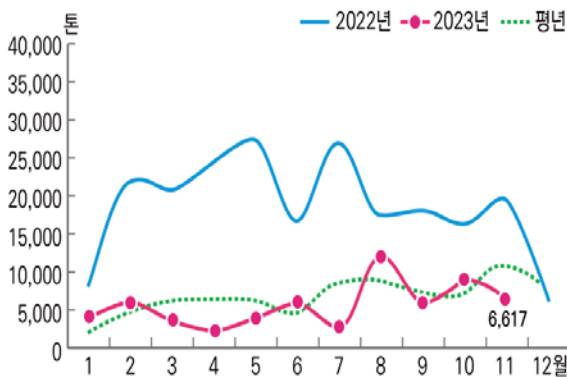
톤) 등의 순이었다.

명태 수입량은 전월 대비 35.5% 증가한 3만 6,654톤이었다.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5.0%, 14.8%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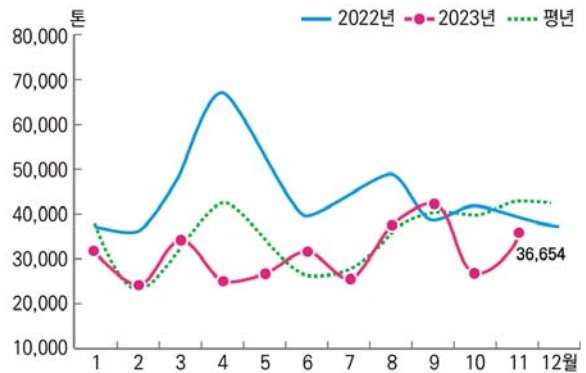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1만 2,83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러시아산 냉동필렛(8,006톤), 미국산 냉동연육(7,881톤), 러시아산 냉동연육(3,157톤) 등의 순이었다.

11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34만 1,177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0.9%, 10.6% 적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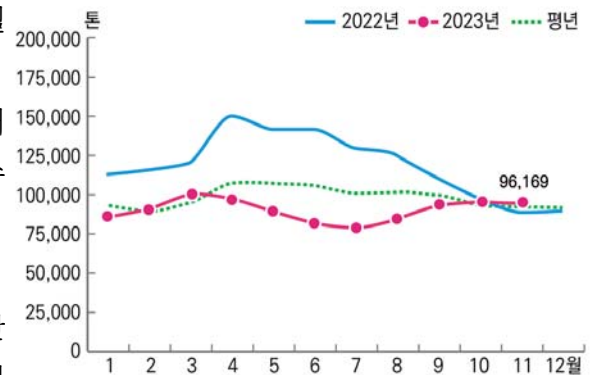
□ 재고동향(11월 재고량, 전월 대비 보합세)

11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9만 6,169톤으로 전월과 비슷하였다.

11월에 들어 본격적으로 겨울철 날씨가 나타나고 대형소매점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소비가 증가했으나, 수입도 늘면서 재고량은 보합세에 그쳤다.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8.6%, 5.4% 많았다.

12월에는 수입은 원활할 것으로 보이나, 원양명태 반입의 경우 감소가 예상되고, 겨울철 소비도 늘고 있어 재고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KMI 수산관측 12월호



제8회 북극협력주간, 부산에서 개최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 모색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12월 10일(일)부터 12일(화)까지 3일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국제여객 터미널 5층)에서 「제8회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을 개최한다.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관련 정책, 과학연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온 국제 포럼으로, 매년 정부 관계자와 주한 북극권 국가 대사, 국내외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하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Great Transition: Navigating New Arctic)'을 주제로 개최되며, ▲10일(일) 소통의 날(개회식 포함), ▲11일(월) 지식의 날, ▲12일(화) 지속가능한 날 등 분야를 정해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일반 국민들도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발표를 듣거나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극권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국가 지위를 획득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정부는 첫 번째 날 개회식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북극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한다. 개회식 직후에는 일본, 중국, 인도 등 다른 옵서버 국가들과 함께 앞

으로 북극이사회에서 옵서버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등 국제기구와 함께 극지연구 협력방향을 모색하는 '북극과학협력세미나' 등 지식을 기반으로 국제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세션이 개최된다.

셋째 날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북극항로의 연중 운항 가능성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과 북극권 국가의 기업 간 교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점차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 북극권과 비북극권이 손을 잡고 기후변화 등 현안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기를 바란다."라며, "북극 관련 국제적 협력의 장이 될 이번 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올해로 8년째 해양수산부와 함께 북극협력주간을 공동 개최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행사가 북극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북극 외교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 2024년 부산 개최(11.25-12.1) 계획 발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가 11월 13일부터 19일 까지 케냐 나이로비 소재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전세계 약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는 1, 2차 INC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UNEP*(유엔환경계획)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초안(zero draft)을 바탕으로 협약의 구체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협상 대표단들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원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 핵심 의무 등에 대해서는 협약 본문뿐만 아니라 부속서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 새로이 마련될 플라스틱 협약이 기존의 환경협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순환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및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플라스틱 오염 예방 조치, 각국의 실질적 이행을 고려한 국별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동 계기에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EU 대표

단과 양자 협의를 갖고 각국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협약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 대사는 유엔환경계획(UNEP) 잉거 안테르센(Inger Andersen) 사무총장, 조티 마서 필립(Jyoti Mathur Filipp) UNEP INC 사무국장과 면담하였으며, 잉거 안테르센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가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조 대사는 무손다 뭄바(Musonda Mumba) 람사르 협약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갖고 습지 자원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11.19(일) 개최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에서 조홍식 대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였고 협상참여국들의 총의로 INC-5의 개최도시 및 개최일정이 확정되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차기 회의(INC-4)는 2024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 예정이다.



해수부, 美 해양포유류보호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해양포유류 보호, 수입제한 대비 위한 대응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에 대한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1월 28일(화) 개최하였다.

이 동등성 평가는 미국이 자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대미(對美) 수산물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국내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이다.

지난 2017년 미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어획방법과 관련하여, 해양포유류 보호수준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평가하고, 부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포유류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해양포유류 혼획 보고 의무화 등 해양포유류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 미국측에 미국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등성 평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올해 11월 17일 대미 수산물 수출국 134개국에 대한 동등성 평가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함을 이유로,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던 동등성 평가 결과 발표를 2년 후로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개시될 예정이었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또한 2년 뒤인 2026년 1월로 연기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 및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미국측의 동등성 평가 및 수입제한 시행에 앞서 추가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해수부, 항만안전 연수회 개최

항만안전 발전방안 모색 및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는 항만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3일(목) 부산항 만연수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의 항만안전 담당자와 함께 항만안전 연수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회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개최되었으며,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전국 항만의 항만안전점검관 11명, 4개 항만공사의 재난안전실장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이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변화된 항만안전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법 이행이 더딘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적극적으로 교환하면서 항만 안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등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항만안전 담당자가 함께 부산항 항만하역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항만 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과 안전 위해요소도 점검하였다.



한국, IMO 최상위 A그룹 이사국에 12회 연속 선출 국제해사기구 제33차 총회에서 재선출

정부(외교부 및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12월 1일(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A그룹(주요 해운국) 이사국에 12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는 기구의 예산, 국제 협약 제·개정 심의 등 기구의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하는 내부기구이며,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으로 구성되어 2년마다 전체 회원국의 투표에 따라 선출된다.

그중에서도, 이사회 내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A그룹 이사국은 해운분야에 기여도가 높은 국가 중 10개국이 선출되며, 이사국 선거에 참여한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국제해사기구(IMO)에 가입한 후 1991년 처음으로 C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5회 연임한 바 있으며, 2001년부터 11회 연속 A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32년간(1991년~2023년) 이

사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2021년 7월 영국 런던에 설치된 국제해사기구(IMO) 대표부와 회원국 내의 우리 대사관을 통해 지난 수개월간 적극적인 지지 교섭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사국 선거 직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영국을 방문하여 각국 대표단과 만나 양자회담을 갖는 등 활발한 지지 교섭 활동을 펼친 끝에 A그룹 이사국 12회 연속 선출의 성과를 거두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A그룹 이사국으로서 자율운항선박, 디지털, 탈탄소 등 국제해사기구(IMO) 내 주요 현안 논의를 적극 주도하며 국제해사기구(IMO)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현안 관련국제기준 제·개정 과정에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 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한국원양산업협회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협회장	윤명길 회장	589-1600	
해외협력본부장	신현애 상무	589-1602	해외협력본부
경영지원본부장	이형균 이사	589-1603	경영지원본부
비서	조한솔 대리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사	589-1603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신현애 상무	589-1602
		조성주 과장	589-1608			최봉준 과장	589-1613
		김민재 주임	589-1609			백상진 주임	589-1614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박찬준 사원	589-1620
		김영수 과장	589-1611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장	589-1616
		최은혁 주임	589-1619			최상진 주임	589-1617
	총무부	이형균 이사	589-1603			이승환 사원	589-1618
		공길웅 과장	589-1605	부산지부	부산지부	이성재 이사	051-253-3388
		조성환 과장	589-1606			김현애 과장	
		이인수 사원	589-1607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최광준 팀장	051-253-3391

해외수산물협업센터	센터장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총괄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국제(수산)기구
	기획운영팀	이석우 팀장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김수민 전문관	044-868-7863	국제(수산)기구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예산, 인사, 명예수산물		이승은 전문관	044-868-7831	국제(수산)기구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통계, OFIS				

■ 팩스: (서울) 02-589-1630/1, (부산) 051-253-3392, (세종) 044-868-7840 ■ 홈페이지: www.kosfa.org

명예해양수산물관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관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관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박상천 수산물관	62-21-2287-4165 scpark@top-bridge.com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관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관	64-3-344-1617 seajho@xtra.co.nz
	모리셔스	이동춘 수산물관	230-217-1700 kmarinelee@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관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가나	이윤홍 수산물관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관	675-321-8137 jc651016@gmail.com

발행 2023년 12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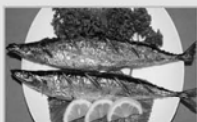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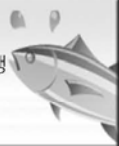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